

# I .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1. 개화파의 형성과 활동

2. 개화사상의 발전

# I.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1. 개화파의 형성과 활동

### 1) 개화파의 형성

조선왕조에서는 19세기 중엽 서양세력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조성된 민족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사상의 하나로 개화사상이 吳慶錫(1831~1879), 劉鴻基(1831~1884?), 朴珪壽(1807~1876) 등 3인의 비조에 의하여 1853년~1860년대에 형성되었다.

1866년(고종 3) ‘제너럴 셔만호사건’과 ‘병인양요’의 큰 충격을 받고 개화사상의 3인의 비조는 개화사상을 실천하여 나라를 크게 개혁해서 구해 낼 혁신적 정치세력인 개화파를 형성시키고자 하였다.<sup>1)</sup> 오경석의 아들 吳世昌은 다음과 같이 회고하여 기록하였다.

나의 아버지 오경석은 조선의 譯官으로서 당시 조선으로부터 중국에 파견되는 冬至使 및 기타의 사절의 통역으로 자주 중국을 왕래하였다. 중국에 체재 중 세계 각국의 각축하는 상황을 견문하고 크게 느낀 바 있었다. 뒤에 列國의 역사와 각국 흥망사를 연구하여 자기 나라 정치의 부패와 세계 대세에 실각되고 있음을 깨닫고, 앞으로 언젠가는 반드시 비극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여 크게 개탄하는 바가 있었다. 이로써 중국에서 귀국할 때에 각종의 新書를 지참하였다…평상시 가장 친교가 있는 友人 중에 大致 劉鴻基라는 동지가 있었다. 그는 학식과 인격이 모두 고매 탁월하고 또한 교양이 심원한 인물이었다. 오경석은 중국에서 가져온 각종 新書를 그에게 주어 연구를 권하였다. 그 뒤 두 사람은

1) 姜在彥, 〈開化思想・開化派・甲申政變〉(《朝鮮近代史研究》, 日本 東京, 1970).  
李光麟, 〈開化黨의 形成〉(《省谷論叢》 3, 1972; 《開化黨研究》, 一潮閣, 1973).  
愼鏞廈, 〈金玉均의 開化思想〉(《東方學志》 46・47・48, 1985).  
金雲泰, 〈韓末開化思想과 그 運動의 展開〉(《朝鮮朝政治思想研究》, 1987).

사상적 동지로서 결합하여 서로 만나면 나라의 형세가 실로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하다고 크게 탄식하고 언젠가는 일대 혁신을 일으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상의하였다. 어떤 날 劉大致가 오경석에게 ‘우리 나라의 개혁은 어떻게 하면 성취할 수 있겠는가’ 하고 묻자, 후자는, ‘먼저 동지를 北村(서울의 북부 당시 상류계급의 거주구역)의 양반자제 중에서 구하여 혁신의 기운을 일으켜야 한다’고 하였다(古筠紀念會 編, 《金玉均傳》 상, 慶應出版社, 1944, 48~49쪽).

여기서 특히 주목할 것은 풍전등화같이 위태한 형세에 있는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일대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동지들로서 서울 북촌의 양반자제들 중에서 영민한 청년들을 선발하여 개화사상을 전파 교육해서 혁신적 정치세력을 형성한 시기가 언젠인가의 문제이다.

오경석과 유홍기는 中人신분의 역관과 한약사이었으므로, 당시의 양반신분 사회에서는 북촌의 영민한 양반자제들을 선발하여 교육시킬 수 있는 사회신분이 아니었다. 개화사상의 세 비조 중에서 양반신분은 박규수뿐이었다. 박규수는 실학자 燕巖 朴趾源의 친손자로서 그가 조부의 실학을 계승하여 개화사상을 형성한 무렵에는 그는 이미 고관대작의 지위에 있었다. 그러므로 박규수는 북촌의 영민한 양반자제들을 자유롭게 선발하여 개화사상을 교육시킬 수 있었다.

박규수는 1866년 음력 2월 4일 평안도관찰사로 임명되어,<sup>2)</sup> 3월 22일 서울을 출발하여 평양에 부임해서,<sup>3)</sup> 7월 19일(양력 8월 28일) ‘제너럴 셔만호’의 도발을 받고, 이를 7월 23일(양력 9월 1일) 火攻으로 격침시켰다.<sup>4)</sup> 박규수가 평안도관찰사의 임기를 끝내고 藝文館提學의 발령을 받은 것은 약 3년 후인 1869년 4월 3일이였다.<sup>5)</sup> 박규수는 상경하자 바로 4월 23일자로 한성판윤에 임명되었고,<sup>6)</sup> 뒤이어 6월 15일자로 형조판서에 겸임으로 임명되었다.<sup>7)</sup> 이 때 박규수의 집은 북촌의 齋洞에 있었다.<sup>8)</sup>

2) 《高宗實錄》, 고종 3년 2월 초4일.

3) 《高宗實錄》, 고종 3년 3월 22일.

4) 《高宗實錄》, 고종 3년 7월 22일 및 7월 27일 平安監司 朴珪壽狀啓 참조.

5) 《高宗實錄》, 고종 6년, 4월 초3일.

6) 《高宗實錄》, 고종 6년 4월 23일.

7) 《高宗實錄》, 고종 6년 6월 15일.

8) 《高宗實錄》, 고종 11년 3월 초5일.

한편 오경석은 1866년에는 프랑스 동양합대의 침공설로 말미암아 그 해 5월에 중국에 파견되어 10월에 귀국하였다.<sup>9)</sup> 또한 1869년에는 오경석은 열번째로 또 중국에 파견되어 12월에 귀국하였다.<sup>10)</sup>

그러므로 오경석·유홍기를 하나로 하고 박규수를 다른 하나로 하여 형성된 한국의 개화사상의 3비조가 합류한 시점은 1869년이라고 볼 수 있다. 북촌의 영민한 양반자제들을 선발하여 개화사상을 교육해서 개화파 혁신세력을 형성하려는 전략을 일찍이 합의하여 갖고 있던 오경석과 유홍기가 ‘제너럴 서만호사건’을 처리하고 1869년에 서울의 관직에 임명받아 귀경한 박규수를 방문하여 서양세력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조성된 나라의 위기를 논의했을 것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뿐만 아니라 오경석의 후손들이 증언하는 바와 같이 북학파인 박규수 가문과 8대나 대대로 중국어 통역관인 오경석의 가문은 대를 이은 교제가 있었다. 또한 박규수가 오경석에 보낸 날짜가 적혀 있지 않은 편지 한 통이 남아 있는 바, 박규수는 이 편지에서 오경석을 정3품 당하관 이하의 관인에게 쓰이던 ‘혜인’이라는 예의상의 호칭을 사용하면서 매우 친밀한 안부와 중국인 관계의 문의를 하고 있는데, 오경석은 1869년 7월에 정3품 堂上譯官이 되었으므로 1869년 이전에 박규수와 오경석이 신분은 다르지만 친밀한 교제가 있었음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sup>11)</sup>

요컨대 오경석·유홍기·박규수는 1869년 말에 완전히 합류하였고, 박규수가 북촌의 양반자제들 중에서 영민한 청년들을 선발하여 박규수의 사랑방에서 1870년 초 전후하여 개화사상의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었다.

물론 박규수의 사랑방에 학숙을 차린 것은 아니었고, 북촌의 영민한 양반자제들이 집단으로 또는 개인으로 박규수의 사랑방을 정기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박규수의 지도를 받은 것이었다. 박규수의 가르침을 받아 개화사상을 형성한 대표적 인물로는 우선 金玉均·洪英植·朴泳敎·朴泳孝·徐光範 등이 있었다. 박영효는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文一平, 〈名相 朴珪壽의 옛터〉(《湖岩全集》3, 朝光社, 1941), 266~268쪽.

9) 吳世昌 작성, 《吳慶錫·吳世昌年譜》 참조.

10) 愼鏞度, 〈吳慶錫의 開化思想과 開化活動〉(《歷史學報》107, 1985), 130~133쪽 참조.

11) 〈朴珪壽의 吳慶錫에게의 ‘惠人’ 書簡〉(吳一六 소장) 참조.

그 新思想은 내 일가 朴珪壽 집 사랑에서 나왔소. 金玉均·洪英植·徐光範 그리고 내 백형(朴泳敎를 가리킴)하고 齋洞 朴珪壽 집 사랑에 모였지요…《燕巖集》의 귀족을 공격하는 글에서 평등사상을 얻었지요(李光洙, 〈朴泳孝씨를 만난 이야기〉, 《東光》, 1931년 3월호).

신채호도 박규수가 그의 집에서 김옥균에게 실학을 계승하여 개화사상을 교육한 사례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金玉均이 일찍이 우의정 朴珪壽를 방문한즉, 박씨가 벽장 속에서 地球儀 1座를 내어 김씨에게 보이니, 그 지구의는 곧 박씨의 조부 燕巖선생이 중국에 유람할 때에 사서 휴대하여 온 바더라. 박씨가 지구의를 한 번 돌리더니 김씨를 돌아보며 웃어 가로되,

‘오늘에 중국이 어디 있느냐. 저리 돌리면 미국이 중국이 되며, 이리 돌리면 朝鮮이 中國이 되어, 어느 나라든지 한 가운데로 돌리면 중국이 되나니, 오늘에 어디 정한 중국이 있느냐’ 하니,

김씨 이 때 開化를 주장하여 新書籍도 좀 보았으나, 매양 수백년래 流傳된 사상, 곧 대지 중앙에 있는 나라는 중국이요, 동서남북에 있는 나라는 四夷니 사이는 중국을 높이는 것이 옳다 하는 사상에 속박되어 국가독립을 부를 일은 꿈도 꾸지 못하였다가 박씨의 말에 크게 깨닫고 무릎을 치고 일어났더라. 이 끝에 甲申政變이 폭발되었더라(申采浩, 〈地動說의 效力〉, 《改訂版 丹齋申采浩全集》 하, 1987, 384쪽).

金允植도 김옥균과 함께 박규수의 문하에서 개화사상을 공부하였다. 김윤식은 자기가 김옥균과 함께 박규수의 제자임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① 처음에 古愚(김옥균)는 職齋(박규수)선생 문하에서 배워 宇內的 대세를 대개 깨닫고 일찍이 동지들과 더불어 국사를 근심하고 개탄했다(金允植, 《續陰晴史》 하, 국사편찬위원회 편, 577쪽).

② 옛날에 朴職齋(珪壽)께서 丙寅洋擾의 때를 당하여 사람들이 모두 西學에 물드는 것을 우려하였는데, 職齋만이 홀로 말하기를, ‘어찌 우리 道가 서양에 적서 들어가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가. 이 말이 거의 장차 증명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였다(金允植, 《續陰晴史》 하, 125쪽).

俞吉濬(渠堂)도 박규수의 가르침을 받아 박규수가 준 《海國圖志》 등을 읽고

개화사상을 갖게 되었으며 개화파가 되었다. 김윤식은 유길준도 김윤식과 함께 박규수로부터 개화사상을 배웠다고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俞渠堂(길준)은 어려서부터 재주가 뛰어나 다박머리 유소년 때에도 말하는 바가 속되지 않았다. 朴蠟齋(박규수)선생이 이 때에 그를 보고 그 國器임을 알아 크게 칭찬했으며, 魏默深(魏源)이 지은 《海國圖志》를 주며 가로되, ‘이 시기에는 外洋의 외국일들을 알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였다. 우리들은 이로써 더욱 스스로 분발하였다(金允植, 〈渠堂詩鈔序〉, 《俞吉潛全書》 5권, 일조각판, 161쪽).

金弘集은 복춘 재동 박규수의 이웃집에 거주했는데, 그의 또래 영민한 양반출신 청년들이 출입하는 박규수의 사랑방에 김홍집도 방문하면서 공부했으리라 하는 것은 추정하기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즉 박규수는 자기의 사랑방에서 뒤에 한국 근대 개화파 거목들이 된 김옥균·김윤식·박영교·박영효·홍영식·서광범·유길준·김홍집 등에게 개화사상을 교육하여 개화세력을 양성한 것이었다.

박규수의 사랑방에서 개화사상을 학습한 청소년들은 처음에는 중인출신 오경석과 유흥기에게서 직접 배우려 하지 않았지만, 일단 개화사상이 형성되어 사회신분제의 부당성을 깨닫고 신분 장벽을 극복할 수 있게 되자, 오경석과 유흥기로부터도 때때로 직접 개화사상을 배우게 되었다. 오세창은 유흥기와 김옥균이 서로 만나 알게 된 것은 김옥균이 20세 때였으며, 이 때부터 유흥기로부터 배우게 되었다고 다음과 같이 회고하여 기록하였다.

劉大致가 金玉均과 서로 안 것은 김옥균이 20세 전후의 무렵이다. 김옥균은 유대치로부터 新思想을 배웠으며, 일면에는 세간의 교유를 널리 구하고, 또 壯年科擧에 응하여 문과에 등제하고 官場에 올랐으며, 새로이 官途에 나아가자 동지를 구하는데 급급하게 노력하였다(《金玉均傳》 상, 50쪽).

김옥균이 20세 때는 1870년이다. 즉 1870년 전후에 김옥균 등 박규수 사랑방에서 개화사상을 공부하는 양반자제들은 유흥기·오경석으로부터도 개화사상을 배우게 된 것이었다.

박규수·유흥기·오경석 등이 김옥균 등 영민한 양반자제들에게 개화사상

을 교육할 때의 지적 자료들은 ① 오경석·유홍기·박규수 등이 형성한 최초의 개화사상, ② 燕巖 朴趾源·楚亭 朴齊家 등 북학파의 실학사상과 그 밖에 다른 실학자들의 실학사상, ③ 오경석과 박규수 등이 중국으로부터 구입해 온 《海國圖志》·《瀛環志略》 등을 비롯한 각종 신서들이었다.

박규수의 사랑방에서 그리고 유홍기와 오경석 등으로부터 개화사상을 배우고 발전시킨 김옥균 등 청년들은 언제부터 정치세력으로서의 ‘開化派’를 형성했는가. 김옥균은 갑신정변(1884)의 10년 전부터 자기의 정치세력을 형성하기 시작했다고 기록하였다.

궁녀 모씨는 나이는 42세이고, 신체가 튼튼하고 커서 남자 이상의 膂力을 가져 보통 남자 5·6인을 당할 수 있다. 평상시에 顧大嫂라는 별명으로 불렸고, 곤전의 近侍로 뽑혀 있는 분인데, 벌써 10년 전부터 我黨(우리 당)을 따라서 때로 密事를 통고해 주는 사람이다(金玉均, 〈甲申日錄〉, 1884년 12월 1일, 《金玉均全集》, 아세아문화사판, 73쪽).

김옥균이 스스로 1884년 10년 전에 이미 ‘우리 당(我黨)’에 비밀스런 일을 알려주던 궁녀의 일을 기록하고 있으니, 김옥균에 의하면 ‘개화파’가 적어도 1874년에는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었다.

또한 오경석의 아들 오세창은 김옥균의 정치세력 형성에 대하여, “김옥균은…일면에는 세간의 교유를 널리 구하고, 또 장년 과거에 응하여 문과에 급제하고 官場에 올랐으며, 새로이 官途에 나아가자 동지를 구하는데 급급하게 노력하였다”<sup>12)</sup>고 회고하여 기록하였다. 즉 김옥균이 동지를 모으는데 적극적인 활동을 한 것은 그가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아간 때부터라는 것이다.

김옥균은 22세 때인 1872년 2월 4일에 알성문과에 장원급제하였고,<sup>13)</sup> 24세 때인 1874년 2월 24일에는 弘文館校理에 임명되었다.<sup>14)</sup> 오세창이 증언한 바 김옥균이 문과에 급제한 후 官途(홍문관 교리)에 나아가자 동지를 모으는 일에 급급했다는 해인 1874년과, 앞서 김옥균이 기록한 바 궁녀 顧大嫂가

12) 古筠記念會, 《金玉均傳》상(慶應出版社, 1944), 50쪽.

13) 《高宗實錄》, 고종 9년 2월 초4일.

14) 《高宗實錄》, 고종 11년 2월 24일.

‘我黨(우리 당)’에 비밀스러운 일을 통보해 주었다는 해인 1874년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다.

김옥균의 관직 경력을 보면, 1874년 2월 24일 홍문관 교리에 임명되었다가 같은 해 12월 3일에는 도리어 홍문관 부교리로 좌천되었다.<sup>15)</sup> 그 후 김옥균은 약 8년을 부교리로서 더 이상 승진을 못한 채 같은 지위에 있다가,<sup>16)</sup> 제1차 渡日 이후인 1882년 9월 22일에야 비로소 승정원 우부승지로 승진하였다.<sup>17)</sup> 김옥균이 홍문관 교리와 부교리로 재직하던 시기가 김옥균이 동지들을 급급하게 구하여 개화파를 형성하는데 정력적으로 활동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개화파 형성의 기점을 이상과 같이 1874년으로 볼 수 있지만, 때로는 1879년을 기점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sup>18)</sup> 그러나 명백한 논증자료가 있는 이상 1874년설을 취함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sup>19)</sup>

개화파는 1874년경에 형성되기 시작했으나, 1876년 조·일수호조규(강화도 조약)체결과 개항 때에는 개화파 요인들은 아직 어린 청년들이어서 정치적 활동을 통해 영향을 끼칠 처지가 못되었다. 1876년의 조·일수호조규체결 때에는 개화파의 스승인 박규수가 우의정을 역임한 판중추부사로서, 역시 개화파의 스승인 오경석이 間情官으로서 활동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1876년 조·일수호조규가 체결되고 부산(1876)·원산(1880)·인천(1883)의 3항이 연이어 개항되자 조선왕조의 민비정권은 세계의 정세와 대외통상을 아는 새로운 관료들을 긴급히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박규수의 사랑방에서 그리고 오경석·유홍기 등으로부터 개화사상의 교육을 받은 김옥균·김윤식·박영교·박영효·홍영식·서광범·김홍집·유길준 등 최초의 개화파들이 정부조직에 진출하여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은 국왕과 다른 고위 관료들을 움직여 가면서 초기 개화정책을 추진했을 뿐 아니라 다른 신진관료들과 청년들에게 개화사상을

15) 《高宗實錄》, 고종 11년 12월 초3일.

16) 《高宗實錄》, 고종 17년 6월 초7일.

17) 《高宗實錄》, 고종 19년 9월 22일.

18) 李光麟, 《開化黨研究》(一潮閣, 1973), 15~16쪽 참조.

19) 愼鏞廈, 〈金玉均의 開化思想〉(《東方學志》 46·47·48, 1985) 참조.



전과하면서 적극적으로 개화파를 형성 확대시켜 나갔다. 특히 김옥균은 이 시기에 개화사상 전과와 동지 규합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이 시기에 개화사상의 3비조 중에서 박규수는 조·일수호조규(강화도조약)가 체결된 병자년 12월 27일(양력 1877년 2월 9일) 별세하였으므로 개항 후의 개화파의 확대에는 별 영향을 끼칠 수 없었다. 또한 오경석은 조·일수호조규를 체결할 때 과로한 결과 1876년 4월 중풍으로 쓰러져 반신불수의 상태로 병석에 누웠으며, 1879년 8월 22일(양력 10월 7일) 49세를 일기로 역시 별세하였으므로, 개항 후의 개화파의 확대에는 오경석 역시 큰 영향을 끼칠 수 없었다. 오직 유흥기만이 건강하게 정력적 활동을 계속했으므로, 김옥균 등이 중심이 된 개화파의 세력형성과 확대에는 유흥기가 스승으로서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일찍이 최남선은 개화파 형성과 유흥기의 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그런데 吳慶錫이 朝官을 유도하여 외교를 운용할 때에, 一白衣로 市井에 隱伏하여 《海國圖志》·《瀛環志略》등으로써 세계의 사정을 卜察하면서 뜻을 내정의 국면 전환에 두고 가만히 귀족 중의 英俊을 규합하여 방략을 가르치고 志氣를 고무하여 준 이가 있으니, 당시 아는 이들 사이에 白衣政丞의 이름을 얻은 劉大致가 그라. 朴泳孝·金玉均·洪英植·徐光範과, 귀족 아닌 이로 白春培·鄭秉夏 등은 다 大致 文하의 俊髦로...박영효·김옥균 등이 연래로 일본교섭의 선두에 선 것은 실상 大致의 指劃 중에서 나온 것이요, 세상이 開化黨으로 지목하는 이는 대개 大致의 門人을 이름하였다(崔南善, 《古事通》, 1943, 218쪽).

여기서 후에 중요한 개화파 인사로 활동한 白春培·鄭秉夏 등이 유흥기의 영향으로 개화파에 참가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능화는 유흥기의 사상적 영향을 받은 인물로서 김옥균·서광범·박영효를 비롯하여 李滄遠·李鼎煥·朴齊綱·吳慶潤·吳慶林·金永漢·金永汶·韓世鎮·李熙穆 등을 들었다.<sup>20)</sup> 이들은 유흥기로부터 불교사상만 배운 것이 아니라 개화사상의 영향도 받아 개화파의 일부를 형성했다고 볼 수 있다.

20) 李能和, 《朝鮮佛教通史》하(新文館, 918), 899쪽.

유홍기의 영향을 받은 불교승려로서는 李東仁·卓挺植 등이 일찍이 개화사상을 배워 개화파에 가담하였다.

김옥균의 활동에 의하여 개화사상을 갖게 되고 개화파의 일원이 된 인사로는 왕족으로서 李載兢(영의정 李最應의 아들)·李獻愚 등이 있었고, 그 밖에 무인으로서 柳赫魯와 柳相五 부자, 중인출신으로서 邊樹(燧), 吳鑑·朴永昌·吳世昌 등이 있었다. 尹雄烈과 尹致昊 부자도 개화파에 가담하였다.

김옥균은 또한 군인 장교들도 개화파에 포섭하였는 바, 일찍이 申福模·李殷丕(李銀石) 등의 외국에서 사관교육을 받은 장교들이 개화파에 가담하였다. 김옥균은 후에 14명의 사관생도들을 선발하여 일본 陸軍戶山學校에 유학시켰는데, 徐載弼·鄭蘭教·朴應學·鄭行徵·林殷明·申重模·尹泳觀·李圭完·河應善·李秉虎·申應熙·李建英·鄭鍾振·白樂雲 등 사관생도들이 개화파가 되었다. 이들 사관생도들과 거의 같은 시기에 일본에 유학하여 양잠학과 영어를 공부하고 돌아온 徐載昌, 의학(우두)을 공부하고 돌아온 南興喆, 승려였다가 환속하여 김옥균을 수행해서 일본에 다녀온 車弘植도 개화파에 가담하여 활동하였다.<sup>21)</sup>

김옥균은 궁궐 안에도 개화파를 심기 시작하였다. 그는 환관 柳載(在)賢을 개화파로 포섭하였으며,<sup>22)</sup> 顧大嫂라는 별명을 가진 궁녀는 일찍이 개화파에 가담하여 1874년경부터 김옥균 등에게 궁중의 중요한 정보들을 알려주었다.<sup>23)</sup> 고대수의 본명은 갑신정변 뒤에 희생되었다는 李禹石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sup>24)</sup>

김옥균은 특히 武弁들 중에서 유능한 인물들에게 개화사상을 교화시키고 개화파에 참가시켰다. 姜璋과 윤웅렬이 그 대표적 인물이었다.<sup>25)</sup> 신복모·이은돌 등이 일찍이 개화파가 된 것도 김옥균의 영향이었다. 김옥균은 친군영 전영의 군인 장교들도 비밀리에 개화파에 가담시켰는데, 尹景完·李應浩·閔

21) 李光麟, 앞의 책, 31쪽.

22) 《尹致昊日記》, 1884년 6월 13일(양력 8월 3일) 참조.

23) 金玉均, 〈甲申日錄〉, 1884년 (양력)12월 1일.

24) 《金玉均傳》상, 421쪽.

李光麟, 앞의 책, 30쪽.

25) 李光麟, 〈姜璋의 人物과 思想〉(《東方學志》 17, 1976) 참조.

昌洙·全興龍·金昌基·崔聖郁 등이 그 대표적 장교들이었다.

김옥균은 또한 하인들 중에서도 능력 있는 자들에게 개화사상을 교육하여 개화파에 참가시켰다. 金奉均·高興宗·李占堧·李允相 등이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었다.

김옥균은 이와 같이 신분·계급·지위·종교를 초월하여 개화파 형성에 전력한 결과 1874~1878년 사이에 개화파는 상당한 세력으로 확립되었다. 그리하여 정치세력으로서의 김옥균을 중심으로 한 개화파는 1878년경에는 활발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단계에까지 성장한 것으로 보인다. 일찍이 갑신정변과 김옥균을 연구한 민태원은 오늘날 우리가 갖지 못한 다수의 자료들과 생존자들의 증언을 채록하여 검토한 후에, 개화파 형성의 시기는 밝히지 않으면서도 김옥균 등 개화파가 1878년(戊寅)에 개혁단행의 ‘제1차 구체적 계획’이 있었다가 뜻하지 않은 중요 동지의 사망으로 계획을 중지했었다고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이와 같이 남 모르는 목적을 품은 그(김옥균-인용자)는 우선 교제를 널리 하여 有爲한 동지를 구하였으니, 錦陵尉 朴泳孝, 徐光範, 柳相五 등은 실로 동지 중의 동지였으며, 더욱이 駙馬 금릉위가 참가한 것은 밖으로 세인의 신망을 더하고 안으로 宮中府中의 연락이 편리하게 되어 무엇보다도 유리한 조건으로 볼 수 있었다.

그네들 중에 구체적 계획이 있는 것은 이로부터(갑신정변으로부터-인용자) 7년 전 되는 戊寅의 해였으나, 마침 중요 동지의 사망으로 제1계획은 土崩瓦解에 돌아가고 이래 3년간에 하염없는 세월을 보내던 金·朴·徐 3인은 우선 외국에 유람하여 세계대세와 문물제도를 살필 필요가 있음을 생각하고 같이 일본에 도항하기를 결정하였으나, 박영효는 사정이 있어 이를 중지하였고, 김씨 홀로 인천을 출발하여 일본을 향하게 되니 때는 辛巳 12월이었다(閔泰琰, 《甲申政變과 金玉均》, 1925 또는 1947, 37~38쪽).

민태원의 기록과 같이 1878년에 개혁단행의 제1차 계획을 실천하려다가 중요 동지의 사망으로 그것을 중단했다면 개화파는 이미 1878년 이전에 확고하게 형성되었기에 1878년에는 정치개혁의 제1차 계획을 실천하려고 추구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김옥균을 중심으로 한 개화파가 1878년부터 이동인을 일본에 파견하려고 노력하다가 1879년에 마침내 이동인을 일본에 보낸 사실에서도 개화파는 1878년 이전에 이미 형성되었음을 방증해 준다. 부산의 일본인 거류지의 東本願寺 일본승려 오쿠무라(奥村圓心)는 1878년에 이동인을 처음 만났고,<sup>26)</sup> 1879년에는 이동인과 함께 일본에 건너갔었는데, 그 때 그의 일기에서 김옥균·박영효 등을 ‘韓國改革黨’이라 기록하고, 이동인을 ‘革命黨’ 박영효·김옥균의 동지라고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東仁은 원래 승려일지라도 평상시 愛國護法の 神經家로서 최근 조선국의 국운이 날로 쇠퇴하고 종교는 이미 땅에 떨어졌다고 하다. 이 때 革命黨 朴泳孝·金玉均 등은 국가의 쇠운을 분개하고 크게 쇄신하려고 하다. 또한 東仁도 의견이 竹節하였으므로 朴泳孝·金玉均 양씨가 東仁을 引見하고 중용하기에 이른다. 그러므로 列國의 公法 등을 알기 위하여 我宗門에 歸入하여 일본에 도향하려고 하다. 東仁은 박영효가 준 純金の 丸棒 4본(길이 2촌, 둘레 1촌 여의 물건)을 나에게 보이고 이것을 路費로 하여 도향한다고 말하다. 그러므로 和田씨 및 兪영사관 前田獻吉씨에게 計하여 本山에 보내기로 하다. 이것은 즉 韓國改革黨이 일본에 도향하는 시작이다(奥村圓心, 《朝鮮布教日誌》, 1879).

일본승려 오쿠무라(奥村)가 1878년의 일기에서 이동인을 처음 만났다고 하고, 1879년의 일기에서 이동인을 한국개혁당 또는 혁명당의 김옥균·박영효의 동지라고 기록한 것은 조선 개화파가 1878년에는 확고하게 형성되어 동지의 해외파견 활동까지 추진했었음을 잘 알려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과거에 일본학계에서 김옥균을 중심으로 한 조선 개화당의 형성은 김옥균의 1881년 음력 12월(양력 1882년 2월) 제1차 일본방문 때 일본 개명과 후쿠자와(福澤諭吉)의 영향을 받고 돌아간 직후라고 보아 온 것은 전혀 사실과 일치하지 않은 천만부당한 억설인 것이다.<sup>27)</sup>

김옥균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결사로서의 조선 개화파는 이미 1874년~

26) 奥村圓心, 《朝鮮布教日誌》, 1878년(明治 11) 6월 2일.

27) 田保橋潔, 《近代日鮮關係の研究》(1940), 909쪽 등에서 朝鮮開化思想과 開化黨의 형성을 1882년 이후 金玉均이 福澤諭吉의 가르침을 받은 이후라고 왜곡하여 해설하였다.

1878년경에 확고하게 형성되어 동지의 해와파견까지 적극 추진한 것이었다. 김옥균·박영효에 의해 1879년에 일본에 파견된 개화승 이동인은 일본에서 각국 공사관의 외교관들과도 접촉하면서 ‘일본국정시찰단(신사유람단)’의 파견 계획까지 추진하였다.<sup>28)</sup> 이것이 김옥균을 중심으로 한 개화파의 활동의 일환이었음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이동인이 1881년에 암살당하자 일본의 《朝野新聞》은 김옥균의 제1차 도일 이전인 1881년 양력 5월 6일자에 〈朝鮮開化黨을 위하여 암살된 李東仁〉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대한 장문의 해설을 게재하였다.<sup>29)</sup>

또한 일본국정시찰단(신사유람단)이 조선조정으로부터 일본에 파견되어 부산을 출발하자 일본의 《東京日日新聞》은 김옥균의 제1차 도일 이전인 1881년 5월 7일자에서 〈(조선)開化黨員 50명은 日本漫遊〉라고 보도하였다.<sup>30)</sup> 또한 조선의 일본국정시찰단이 일본에 도착하여 활동을 시작하자 일본의 《조야신문》은 김옥균의 제1차 도일 이전인 1881년 5월 20일자에 〈朝鮮國朝土 日本研究에 渡來—開進・守舊의 吳越同舟—〉라는 표제로 일본국정시찰단 중의 개화당 魚允中과 수구당 인사 사이의 논쟁을 보도하였다.<sup>31)</sup> 일본측은 1878년경에 조선에서 개화파의 형성이 확고히 되었고, 1881년에 들어서자 조선의 개화파와 수구파 사이에 갈등과 논쟁이 있었을 정도로 개화파의 성장 이 있었음을 이 때에 알고 있었던 것이다.

개화파의 영수격인 김옥균은 개화파가 추진한 일본국정시찰단이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귀국하자 그 자신이 직접 일본의 근대화 진행과정을 시찰할 필요를 절감하고 1881년 음력 12월(양력 1882년 2월) 제1차 일본방문 길에 올라 부산을 출발하였다. 이 때 부산의 일본거류민 신문인 《朝鮮新報》는 1882년 양력 3월 15일자에 〈金玉均 왕명을 받아 日本에〉라는 제목 밑에 ‘朝鮮의

28) 《Satow日記》, 1880년 12월 1일, Asano(淺野: 李東仁의 일본 변명) went off this morning after breakfast. His last idea is to bring a mission composed of the most advanced men here and make conventions with the foreign representatives 참조.

29) 《朝野新聞》, 1881년(明治 14) 5월 6일, 〈朝鮮開化黨の爲に暗殺された李東仁〉(《新聞集成明治編年史》4권, 386~387쪽).

30) 《東京日日新聞》, 1881년 5월 7일(《新聞集成明治編年史》4권, 388쪽).

31) 《朝野新聞》, 1881년 5월 20일(《新聞集成明治編年史》4권, 393쪽).

開化黨의 유명한金玉均씨는 왕명을 받들고 我國(일본-인용자)에 渡航<sup>32)</sup>하려 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김옥균이 아직 최초로 일본에 도착하기도 전에 ‘조선의 개화당의 유명한 김옥균씨’라고 하여, 조선 개화당이 김옥균 도일 후에 후쿠자와를 만나 영향을 받고 나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이전에 형성되었음을 명료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김옥균이 나가사키(長崎)에 도착하자 일본의 《동경일일신문》은 1882년 양력 4월 13일자에서 〈朝鮮開化黨 首領 金玉均 來遊—《朝鮮新報》의 기사에 신경을 날카롭게 하다—〉라는 제목을 달아 이 사실을 대대적으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이전에 우리 지상에 보도한 바와 같이 朝鮮開化黨의 領首인 金玉均씨는 日本遊歷을 하려고 요사이 長崎에 도착하여 아직 同港에 체류중이다. 원래 同氏는 우리 무역상회의 甲斐軍次씨와 동행하여 도향했으나, 甲斐씨는 어떤 지금한 불일이 있어서 부산으로 가고 불일을 끝낸 다음에 또 長崎에 귀향하게 되면 그때에는 다시 金玉均과 일당의 柳五衛씨도 동행할 것 같은데, 이 양씨의 도향의 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소문이 있다. 이미 지난 일자 발행의 《朝鮮新報》등에는 右兩氏의 일본행은 전적으로 國王의 內命을 받들어서 國債募集을 위함이다라고 게재되었다. 양씨는 이 신문을 보고 크게 놀라서 당혹한 모습으로 다음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말하였다. 금일 우리들의 일본행은 결코 官用的 義를 띤 것이 아님은 우리 조정의 실정을 보아도 명료한 것인데, 어떻게 하여 이러한 訛言이 전해졌는가. 그렇지 않아도 우리 반대당은 이것저것 誣說을 지어내고 여러 가지 疑念을 품어서 우리들에게 대항하려고 하는 勢에 있는데, 이제 이 신문이 한번 그들의 눈에 띄어 우리들의 일본행은 이러한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들이 歸韓의 後에 어떠한 變事가 몸에 미칠지 알 수 없다. 원래 우리의 此行은 一은 반대당의 氣焰을 피하고, 一은 일본 近事의 內情을 시찰하여 향후 隣交內地의 참고에 충당하려는 의도 외에 없는 것이라고 하여 심하게 同新聞의 誤傳에 迷惑하고 있다더라(《東京日日新聞》, 1882년 4월 13일, 朝鮮開化黨首領 金玉均來遊—《朝鮮新報》の記事に神經を尖らす—; 《新聞集成明治編年史》 5권, 62쪽).

위의 자료들에서 명백히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조선의 개화파 형성은 김

32) 《朝鮮新報》, 1882년 3월 15일(《新聞集成明治編年史》 5권, 48쪽).

옥균의 제1차 도일시기 이전에 이미 확고하게 이루어진 것이었다 사실이 그러했기 때문에 정작 김옥균이 제1차로 일본에 건너갈 때에는 당시 일본의 중요한 중앙지들이 김옥균을 ‘朝鮮開化黨의 首領’이라고 보도하고, 조선 개화당의 유명한 김옥균씨가 일본을 방문한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이었다. 아직 조선에서 개화파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옥균이 제1차로 일본에 건너가 일본 개명파의 거두 후쿠자와를 만나 그로부터 배워서 그 후 개화사상과 개화파를 형성했다고 가정하면 김옥균이 제1차로 일본에 건너가 도착하기도 전에 ‘조선 개화당 수령’ 김옥균씨가 일본에 온다고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김옥균이 제1차로 도일하여 후쿠자와를 만난 후 조선 개화파가 형성되었다는 과거 일본학계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억설인 것이다.

요컨대 조선의 개화파는 김옥균을 중심으로 하여 주로 유흥기의 지도를 받으면서 1874년~1878년경에 확고하게 형성되었다. 뿐만 아니라 1878년에는 근대적 개혁 단행을 위한 ‘제1차 구체적 계획’까지 수립하여 실천하려다가 중요 동지의 사망으로 중단하기도 하였다. 조선 개화는 1879년에는 이동인을 일본에 파견할 수 있을 만큼 활발하게 활동범위를 외국에까지 넓혔으며, 일본국정시찰단(신사유람단)의 파견을 기획하고 추진하기까지 하였다.

조선 개화파의 초기 성장이 이와 같이 급속하게 진전된 결과 1881년 말 김옥균이 제1차로 일본에 건너가기 직전에는 개화파의 이동인이 암살당하였고 김옥균 등이 반대당의 공격을 두려워할 정도로 개화파와 수구파 사이에 갈등과 대립이 조선조정 내부에 나타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2) 개화파의 분화

개화파는 개항 후 개화활동을 활발히 전개하는 중에 1881년(고종 18)까지는 수구파인 위정척사파의 공격에 대응하기에도 힘이 부족한 형편이어서 아직 개화파 내부의 분화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 갈등은 주로 개화파와 위정척사파 사이에서 전개되었다.

개화파의 개화활동을 불안하게 보고 있던 유생들은 1880년 10월 수신사

김홍집이 일본에서 귀국할 때 주일 청국대사관의 중국인 외교관 黃遵憲이 지어준 《朝鮮策略》을 국왕에게 바치고 이 책이 필사되어 유생들에게 전해지자 전국 유생들이 들고 일어나 개화파와 정부의 개화정책을 비판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조선책략》의 주요 내용은 가장 위험한 나라를 러시아로 보고 조선은 러시아의 침략에 대항하기 위해 ‘親中國・結日本・聯美國’할 것을 권고한 것이었다. 또한 이 책은 조선이 미국과도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할 것을 적극 권고하면서, 야소교(신교)는 천주교와 뿌리는 같으나 당파가 달라 정치에 간여하지 않으므로 두려워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은근히 그 수용도 시사하였다.

이 책을 읽어 본 유생들은 수신사 김홍집이 귀국하여 복명한 지 약 1개월 후부터 《조선책략》을 규탄함과 동시에 이를 가져온 김홍집의 처벌과 개화정책 추진의 중단을 요구하는 위정척사 상소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이듬해인 1881년(辛巳)에는 이른 봄부터 <영남만인소>가 올라오고, 뒤이어 전국 유생들이 줄을 이어 상소를 올리면서 《조선책략》을 규탄함과 동시에 개화파의 개화활동과 정부의 실정도 규탄했으므로 일년 내내 개화파와 위정척사파의 상소 형식을 빌린 논쟁이 계속되었다. 그 위에 대원군의 서자 李載先이 중심이 되어 위정척사파와 손잡고 정변을 일으켜서 국왕을 폐위시키고 대원군정권을 수립하려는 음모까지 발각되어 정부·개화파 대 위정척사파의 갈등은 더욱 격화되었다.

개화파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개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으므로 그들은 개혁문제에 대하여 의견 차이가 나오는 경우에도 1881년까지는 서로 잘 협조하면서 개화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후에 온건개화파에 속하게 된 김윤식은 후에 급진개화파의 영수가 된 김옥균에 대하여 1881년 영선사파전 무렵까지 그들 사이의 공고한 단결과 협조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처음에 古愚(김옥균)는 礪齋(박규수)선생 문하에서 배워 宇內的 대세를 대개 깨닫고 일찍이 동지들과 더불어 國事를 근심하고 개탄했다. 辛巳년간 나는 領選使로 天津에 들어가고, 古愚 등은 동쪽으로 일본에 건너가 유람하면서 함께



扶國하기로 약속했었다(金允植, 《續陰晴史》 하, 부록 追補陰晴史, 577쪽 참조).

그러나 1882년 6월 9일(양력 7월 23일) 임오군란이 일어나고 청군이 개입함으로써 사태는 근본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임오군란이 일어나서 민비정권이 붕괴되고 대원군이 집권하자 민비 수구파는 청국에게 구원을 요청했으며, 청국의 북양대신 李鴻章 등은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한림원 학사 張佩綸의 이른바 〈東征善後六策〉이라는 건의안을 채택하여 이 기회에 청국군을 파견하여 서울에 상주시키면서 적극 간섭정책을 실시하고 조선을 실질적으로 ‘속방화’하기로 결정하였다.

청국은 이에 1882년 6월 27일 약 3,000명의 청군을 조선에 파병하여 서울에 주둔시키고, 7월 7일에는 집권자이자 국왕의 아버지인 대원군을 군함에 초청해 놓고는 그대로 납치하여 청국에 실어다가 保定府에 유배하여 버렸다. 이에 청군의 작용으로 대원군정권은 붕괴되고 다시 민비정권이 재집권하게 된 것이었다.

청국은 민비정권을 다시 세워 원상복구를 해놓고서도 3,000명의 청국군을 철수시키지 아니하고 서울 복판에 주둔시킨 채 이 무력을 배경으로 하여 허명의 종주권을 주장하면서 조선을 실질적으로 속방화하기 위한 적극 간섭정책을 집행하고 조선의 자주독립을 크게 침해하기 시작하였다.

조선에 주둔한 청국의 장군 吳長慶과 젊은 장교 袁世凱는 조선조정의 군사권을 장악하고, 재정고문으로 파견된 陳樹棠은 재정을 장악해 갔으며, 이홍장이 파견한 뮐렌도르프(Paul Georg von Möllendorff, 穆麟德)는 새로 설립한 해관을 장악했을 뿐 아니라 외교까지 장악하려 하였다.

청국측은 뿐만 아니라 김옥균을 중심으로 한 조선 개화파의 개화활동이 궁극적으로 청국으로부터의 조선의 자주독립을 추구하는 활동이라고 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개화파를 탄압하고 개화활동을 방해하였다. 조선 개화파는 임오군란 이후에는 어떠한 개화정책을 실시하려 해도 청국측의 방해와 견제를 물리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당시 ‘임오군란’에 의하여 한 번 정권이 붕괴되었다가 청국측의 구원으로 다시 정권을 장악하게 된 민비 수구파는 청국의 ‘속방화’정책에 순종하여 조

선의 독립이 청군에 의해 크게 침해되고 자주근대화가 저지되는 것은 전혀 돌아보지 않았다. 임오군란 이전에 제후하여 등용했던 개화파에 대해서도 이제는 이를 경원시켰으며, 도리어 청군과 야합하여 개화파를 견제하고 탄압하기까지 하였다

당시 청국이 조선의 자주독립을 얼마나 침해했는가의 몇 가지 사례를 들면 청국은 임오군란을 진압한 직후에 민비정권에게 압력을 가하여 그 동안 조선이 각국과 맺은 불평등 통상조약들 중에서도 가장 불평등하고 청국의 특권을 설정한 〈朝中商民水陸貿易章程〉을 1882년 8월 23일(양력 10월 4일) 체결토록 강요했으며, 그 전문에는 조선은 중국의 속방이라고 문자로 명시해 넣었다. 심지어 속국 조선은 중국과 ‘조약’·‘조규’의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章程’의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청국측이 일방적으로 초안을 작성한 무역장정의 승인을 강요하여, 국왕의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선포하였다. 재정고문 陳樹棠은 방자하게 ‘조선은 중국의 속국’이라는 귀절을 넣은 방문을 승례문에 써 붙이기까지 하였다.<sup>33)</sup>

진수당은 또한 한국인의 집을 강제로 사들이고자 하여 이에 항의한 조선 조정의 正言 李範晉을 청군의 군영에 잡아다가 어지러이 매를 때리는 만행까지도 자행하였다.<sup>34)</sup> 또한 청국은 민비정부에 대하여 ‘무릇 외교에 관한 일은 일체를 청국에 문의하라’고 지시했으며, 청군 대장 오장경은 조선국왕 고종에게 맞대놓고 “내가 3천 군대를 거느리고 이 곳에 와 있으므로 매사에 皇朝(청국)를 배반해서는 안 된다”<sup>35)</sup>고 협박하였다. 오장경은 고종에게 “내년 봄에는 청국의 군대가 증파될 것이다”<sup>36)</sup>라고 위협하기도 하였다.

서울에 주둔한 청군의 행패도 극심하였다. 하나의 예만 들면 청군들이 광통교 약국에서 무상으로 약품을 빼앗으려 하다가 약값을 요구하는 약국주인 최씨의 아들을 사살하고 최씨에게 충을 쏘아 중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하였다.<sup>37)</sup> 조선정부에서 발행하는 개화파의 신문인 《漢城旬報》가 이 사건을 보

33) 《尹致昊日記》, 1883년 10월 5일.

34) 《尹致昊日記》, 1884년 5월 28일.

35) 《尹致昊日記》, 1883년 10월 3일.

36) 《尹致昊日記》, 1883년 12월 4일.

37) 《尹致昊日記》, 1884년 1월 3일.

도하자, 청군은 이 사건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해서 《한성순보》를 발행하는 통리기무아문의 博文局을 습격하기까지 하였다.<sup>38)</sup> 그러나 청군의 도움으로 재집권한 민비정권은 이러한 청군의 만행에 대하여 항의조차 한 번 변변히 하지도 못하는 형편이었다.

임오군란 이후의 청국의 이러한 정책전환과 청군의 만행에 대하여 대응책을 놓고 1882년 8월부터는 개화파의 내부에서 현저하게 견해 차이가 노출되어, 개화파는 김옥균·박영교·홍영식·박영효·서광범 등을 중심으로 한 급진파와 김윤식·어윤중·김홍집·박정양 등을 중심으로 한 온건파로 분화되기 시작하였다. 개화파가 급진파와 온건파로 분화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서 는 다음의 세 가지 점이 특히 주목될 수 있다.

첫째, 청국의 조선에 대한 속방화의 적극적인 간섭정책에 대한 비판과 조선의 자주독립에 대한 강조의 무게에 있어서 개화파 내부에 의견 차이가 노출되었다.

김옥균을 중심으로 한 개화파세력은 청국의 조선에 대한 속방화 적극 간섭정책을 조선의 자주독립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며 조선에 대한 매우 큰 침략적 위협이라고 간주하여 이를 격렬하게 규탄했으며, 비록 개화파의 정적이었지만 대원균을 청국이 납치해 간 것을 조선의 주권을 유린한 만행이라고 통분해 하고 이를 격렬하게 규탄하였다. 김옥균은 이 무렵 청국의 조선 독립 침해에 대하여 그의 친우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자래로 청국이 자의로 (조선을) 屬國으로 생각해 온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며 나라(조선)가 振作의 희망이 없는 것은 역시 여기에 원인이 없지 않다. 여기서 첫째로 해야 할 일은 羈絆을 撤退하고 특히 獨全自主之國을 수립하는 일이다. 독립을 바라면 정치와 외교를 불가불 自修自強해야 한다(金玉均, 〈朝鮮改革意見書〉, 《金玉均全集》, 110~111쪽).

김옥균이 여기서 말한 ‘獨全自主之國’은 현대어로 번역하면 ‘완전 자주독립 국가’라고 말할 수 있다. 김옥균은 청국이 조선에 대하여 속방화 적극 간섭정책을 쓰기 때문에 조선의 큰 발전의 희망이 없는 것이므로 조선에서 첫째

38) 《漢城旬報》10호, 1884년 1월 3일, 〈革兵犯罪〉.

로 해야 할 일은 청국의 명예를 철폐하고 완전 자주독립국을 수립하는 일이라고 강조한 것이었다.

김옥균의 동지인 서재필은 이 점에 대하여 김옥균의 생각을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그 때 김옥균의 생각은 무엇보다도 청나라 세력을 꺾어 버리는 동시에 그에 추종하는 귀족들의 세력을 빼앗은 후에 우리 나라의 완전 자주독립정치를 수립하자는 것이 그의 이상이었고 실현의 최고 목적이었다.

더욱이 청나라에서 대원군을 납치하였다는 것은 우리로서 참을 수 없는 치욕이라고 하여 분개함을 참을 수가 없어 그 세력구축과 귀족타파의 깃발을 둘러매고 나서려 한 것이다(金道泰 編, 《徐載弼博士自敘傳》, 首善社, 1949, 86~87쪽).

서재필은 김옥균 등의 이 문제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김옥균은 조국이 청국의 종주권 아래 있는 굴욕감을 참지 못하여 어찌하면 이 수치를 벗어나 조선도 세계 각국 중에 평등과 자유의 일원이 될까 주주야야로 노심초사하였던 것이다(徐載弼, 〈回顧甲申政變〉; 閔泰瑗, 《甲申政變과金玉均》, 82쪽).

개화파에 의하여 일본에 유학생으로 파견되었던 申重模는 당시 김옥균으로부터 들은 말을 다음과 같이 공술하였다.

나는 원래 常漢이었으나 유길준의 愛顧에 의하여 일본에 건너가서 어학을 배우고 귀국하였다. 당시 渡日한 20여 명 중에서 나를 비롯한 14명은 士官學校에서 1년 반 공부했으나, 그 후 金玉均이 일본에 와서 1주일에 1회씩 모이게 되어 누누히 相會하였다. 따라서 김옥균으로부터 들은 말에 의하면, '서양 각국은 모두 독립국가이다. 어떠한 국가든지 독립한 연후에야 비로소 타국과 화친할 수 있는 것이다. 조선은 오직 청국의 屬國이 되어 있는 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조선도 언젠가는 독립국가가 되어서 서양제국과 同列에 서야 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推案及鞫案》, 大逆不道罪人喜貞等鞫案 中の 申重模의 供述, 亞細亞文化社版 30책, 588쪽).

김옥균 등이 청국의 조선에 대한 속방화정책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항했으며, 청국의 종속화정책으로부터의 조선의 완전 독립쟁취를 얼마나 중시했는가를 위의 자료들에서 충분히 알 수 있다.

이에 비하여 김윤식·어윤중 등은 청국 체류중에 민비의 의뢰를 받고 이홍장에게 청군의 조선파병에 의한 임오군란의 진압 요청을 전달해 주었으며, 청국의 대원군 납치에도 방조적이었다. 김홍집도 청국의 적극 간섭정책과 대원군 납치에 대한 비판의 정도가 김옥균 등과 같이 강렬하지 못하였다. 조·청관계에 관련하여 자주독립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의 정도에서 개화파 내부에 현저한 견해 차이가 드러나 개화파 분화의 요인을 이룬 것이었다.

둘째, 조선의 개화를 추진하는 범위와 속도에 대하여 개화파 내부에 견해 차이가 노출되었다.

김옥균을 중심으로 한 개화파는 서양의 선진 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할 뿐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부문에서 모든 제도의 ‘대경장개혁’을 주장하는 ‘변법적 개화’를 주창하였다. 김옥균은 일본 자유당계 요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4백년 누적된 頑俗을 갑자기 변화시키기가 매우 어렵다. 대세는 부득불 정부를 한 번 大更張改革을 한 연후에야 군권(독립권)을 높일 수 있고 민생을 보전할 수 있다”<sup>39)</sup>고 하면서 “독립을 바라면 정치와 외교를 불가불 自修自強해야 하는데, 이 일은 지금의 정부 인물로서는 될 수 없으므로 군권(독립권)을 위태롭게 하고 권세만 탐내는 고식배들을 역시 불가불 한 번 소제할 수밖에 없다”<sup>40)</sup>고 주장하였다.

서재필은 김옥균의 꿈이 국가의 모든 부문에서 급속히 개화를 성취하여 “일본이 동방의 영국 노릇을 하려 하니 조선은 아시아의 프랑스 같은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었다고 다음과 같이 회고해서 기록하였다.

매 일요일이면 우리는 반드시 그(김옥균)를 築地 寓居로 심방하였다. 그럴 때마다 그는 우리를 親弟와 같이 대접하며 숨김없고 남김없는 폐간 속의 말을

39) 金玉均, 〈朝鮮改革意見書〉(《金玉均全集》, 109~110쪽).

40) 위와 같음(111쪽).

우리에게 들려 주었다. 그는 祖國刷新에 대한 우리의 중차대한 임무를 말하는 동시에 나라에 돌아가 우리가 빛나는 대공훈을 세울 것을 믿어 마지아니하였다. 그리고 그는 늘 우리에게 말하기를 ‘일본이 동방의 英國 노릇을 하려 하니 우리는 우리 나라를 亞細亞의 佛蘭西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것이 그의 꿈이었고 또 유일한 야심이였다. 우리는 김씨의 말을 신뢰하고 우리의 전도에 무엇이 닥쳐오든지 우리의 책임을 이행하고자 말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였던 것이다(徐載弼, 〈回顧甲申政變〉, 《甲申政變과 金玉均》, 84~85쪽).

한편 당시에 김윤식·어윤중·김홍집 등은 서양의 선진 과학기술의 수용에는 마찬가지로 적극적이었으나, 사회제도의 대개혁에는 매우 소극적이어서 아직도 東道西器論의 성격이 강했으며, 개화의 속도도 점진적인 것을 선호하였다.<sup>41)</sup> 김윤식·어윤중·김홍집 등은 온건개화를 추구했던 것이다.

셋째, 개화독립정책을 단행하기 위한 권력 장악의 방법에 대하여 개화파 내부에 견해 차이가 내재하였다.

김옥균을 중심으로 한 급진개화파는 자주독립과 대경장개혁의 단행을 위한 권력 장악의 방법에 있어서는 ‘權道’의 사용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들은 이 때문에 ‘정변’의 방법을 기회 있을 때마다 중시하였다.

김옥균은 대경장개혁 단행의 두 개의 방법으로 일찍이 ‘평화행사의 방법’과 ‘무력행사의 방법’을 구분하여 강조한 바 있다.<sup>42)</sup> 김옥균에 의하면 평화행사의 방법이란 국왕의 칙령을 빌어서 평화적 방법으로 점진적으로 개혁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한편 무력행사의 방법은 국왕의 密意에 의탁하면서 무력을 사용하여 정변이나 혁명을 일으켜 먼저 정권을 장악한 다음에 급진적으로 개혁사업을 신속히 단행하는 방법이다.

서재필은 김옥균이 개화를 ① 구미형과 ② 일본형으로 나누어 보면서, 구미형은 수세기(수백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룩된 것인데 비하여 일본형은 한 세대에 이룩한 것인데, 조선은 뒤늦게 개화를 하려는 것이므로 김옥균이 단기형인 일본형을 선택하여 이를 성취하려고 정변의 방법도 생각한 것이었다

41) 尹致昊, 〈風雨二十年—韓末政客의 回顧談〉(《東亞日報》, 1930년 1월 12일).

42) 金玉均, 〈朝鮮改革意見書〉(《金玉均全集》, 111~112쪽) 참조.

고 설명하였다.

그(김옥균)는 歐美의 문명이 일조일석의 것이 아니고 열국간 경쟁적 노력에 의한 점진 결과로 幾多 世紀를 요한 것이었는데, 일본은 한 代 동안에 그것을 달성한 양 깨달았다. 그리하여 그는 자연 일본을 모델로 청하여 백방으로 분주하였던 것이다(徐載弼, <回顧甲申政變>, 《甲申政變과 金玉均》, 82쪽).

한편 김윤식·어윤중·김홍집 등 온건개화파는 아무리 대경장개혁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권도로서의 ‘정변’의 방법은 찬성하지 않았으며, 세력을 길러 국왕의 자발적 임명에 의거한 정권 장악의 방법을 추구하는 정치적 견해를 갖고 있었다.

주로 이상과 같은 요인으로 말미암아 초기 개화파는 1882년 후반부터 1884년 사이에 김옥균·홍영식·박영교·박영효·서광범 등을 중심으로 한 급진개화파와 김윤식·어윤중·김홍집 등을 중심으로 한 온건개화파로 분화하게 되었다.

1882년~1884년 당시 국내 정치세력의 분화와 그 주요 인물 및 정치적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1882~84년의 조선 정치세력과 당파의 분화

	정치세력당파	중요 인물	정치적 특징
①	급진개화파 (개화당)	劉鴻基, 金玉均, 洪英植, 朴泳教, 朴泳孝, 徐光範, 柳相五, 徐載弼, 尹雄烈, 尹致昊, 邊樹(櫛), 朴齊綱 그 밖의 다수	○ 변법적 개화 및 국정 전반에 걸친 대경장혁신을 추구 ○ 청국의 적극 간섭정책과 속방화정책에 적극 저항 ○ 개변의 방법도 불사 ○ 주로 선각적 청년 지식인층으로 구성 ○ 조정의 중간 관직에 다수 진출
②	온건개화파 (중간파)	金綺秀, 金弘集, 金允植, 魚允中, 朴定陽, 金晩植, 金仁植, 姜文馨, 李 永, 申箕善, 李元會, 趙秉鎬 그 밖의 다수	○ 東道西器論의 개화를 추구 ○ 점진적 개화를 추구 ○ 정변의 방법에 불찬성 ○ 주로 장년층 중심의 구성 ○ 조정의 고위 관직에 다수 진출

③	민비수구파 (집권파)	閔 妃, 閔台鎬, 閔謙鎬, 閔應植, 閔泳翊, 閔丙奭, 閔泳穆, 閔種默, 趙寧夏, 韓圭稷, 李祖淵, 尹泰駿 그 밖의 다수	○守舊를 원칙적으로 추구했으나 불 가피할 때는 開化를 승인 ○임오군란 후에는 親淸事大정책을 추구 ○閔氏戚族을 중심으로 구성 ○주로 노년·장년층이 중심 ○조정의 최고권력과 관직을 점유한 집권파임
④	대원군수구파	興宣大院君(李昰應), 李載元, 李載完, 李載晃, 李載先, 洪淳馨, 鄭顯德, 申應朝, 李景夏, 韓聖根, 李載純 그 밖의 다수	○守舊를 원칙으로 추구 ○왕권의 강화, 宗社의 구습보전을 추 구 ○청에 대해서는 의례적 사대외교만 하고, 실질적으로는 자주를 추구 ○대원군을 중심으로 하여 종친과 그 세력으로 구성 ○임오군란 때 1개월간 집권했으나 그 이후에는 실권
⑤	위정척사파 (재야유림 수구파)	金平默, 崔益鉉, 柳麟錫, 李晩孫, 白樂寬, 梁憲洙, 申 櫟, 洪在鶴, 奇宇萬, 韓洪烈, 高定柱, 金鎮淳 그 밖의 다수	○철저한 守舊와 위정척사를 이론적 실천적으로 고수 ○명과 중국에는 사대적이며, 淸에는 중립적 외교지지 ○일본과 서양에 대해서는 극단적으 로 배척 ○서원과 향교를 근거지로 한 유림세 력으로 구성 ○평상시에는 조정의 관직에 진출하 지 않고 재야세력으로 존재

위의 <표 1>에서 ①과 ②의 정치세력과 과당이 개화파의 범주에 들어오는 것이고, ③④⑤의 정치세력이 수구파의 범주에 드는 것이다. 위의 표는 ①의 정치세력에 접근할수록 더욱 개화적이고, ⑤의 정치세력에 접근할수록 더욱 수구적인 정파의 분류표이다.

1884년의 갑신정변은 위의 표의 5개 정치세력·정파 중에서 ①의 급진개화파가 청군과 ③의 민비 수구파정권에 대항하여 일으킨 정치운동이었다.



### 3) 개화파의 활동

개화파는 1879년(고종 16)에 이동인을 일본에 파견한 것을 비롯해서 1880~1884년 갑신정변 직전까지 여러 가지 개화활동을 전개하였다. 그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것을 항목화하여 들면 다음과 같다.

#### (1) 통리기무아문의 설치(1880)

조정에 진출한 개화파들이 중심이 되어 개항 후의 정세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외교와 통상을 관장하는 새로운 행정기구로서 종래의 의정부·6조 기구와는 별도로 1880년 12월(양력 1881년 1월) 통리기무아문을 신설하였다.<sup>43)</sup> 그 설치 목적은 “통리아문의 설치는 時務를 강구하고 變通을 참작함을 전담하기 위한 것이다”<sup>44)</sup>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전적으로 개항 후의 정세변동에 대응하기 위하여 설치한 근대적 행정기구였다.

통리기무아문은 처음 설치할 때 다음과 같이 12司를 두어 업무를 분담하도록 하였다.

- ① 事大司 : 중국과의 외교문서와 사신 왕래 등 중국에 대한 외교를 관장
- ② 交隣司 : 일본 및 기타 각국 관계의 문서와 사신 왕래 등의 외교사무를 관장
- ③ 軍務司 : 서울과 지방의 군사를 통솔하는 사무를 관장
- ④ 邊政司 : 邊政의 사무와 이웃 나라의 동정·정탐 등의 사무를 관장
- ⑤ 通商司 : 중국 및 이웃 나라와의 통상사무를 관장
- ⑥ 軍物司 : 병기제조 등의 사무를 관장
- ⑦ 機械司 : 각종의 기계제조 등의 사무를 관장
- ⑧ 船艦司 : 각종의 선박제조와 통솔 등의 사무를 관장

43) 全海宗, 〈統理機務衙門 設置의 경위에 대하여〉(《歷史學報》17·18, 1962).

李光麟, 〈統理機務衙門의 組織과 機能〉(《學術院論文集》-인문·사회과학편 26-  
-, 1987).

金弼東, 〈갑오경장 이전 朝鮮의 近代의 官制改革의 추이와 새로운 官僚機構의 성격〉(《韓國社會史學會論文集》33-한국의 사회제도와 농촌사회의 변동-, 문학과 지성사, 1992).

44) 《統理機務通商事務衙門章程》(규장각 도서) 참조.

- ⑨ 議沿司: 연안의 포구를 왕래하는 선박의 검사 등 사무를 관장
- ⑩ 語學司: 각국의 언어·문학 등을 번역·해석하는 사무를 관장
- ⑪ 典選司: 才藝를 택하여 취하고 각 司의 需用 등의 사무를 관장
- ⑫ 理用司: 財用의 경리 등의 사무를 관장

통리기무아문은 신설된 후 세 차례의 개편을 보았다. 그 첫 개편은 1882년 11월 통리기무아문을 統理衙門과 統理內務衙門으로 분화시킨 것이다. 그 다음은 한 달 후인 1882년 12월에 다시 통리아문을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으로 개칭하고 통리내무아문을 統理軍國事務衙門으로 개칭하였다. 이 때에는 김윤식·박정양·어윤중·김홍집·홍영식·김옥균·金明均·卞元圭·尹起晉·李源兢·尹致昊·李健鎬·呂圭亨·高永喆·張博·金基駿 등 개화파들이 크게 진출하여 활동하였다.

이 두 아문은 다시 1884년 10월 통리군국사무아문을 의정부에 통합시켰으므로 통리고섭통상사무아문만이 남게 되어 이것이 기구가 축소된 채 그 후 통리아문으로서 갑오경장 때까지 존속되었다.

## (2) 일본국정시찰단(신사유람단)의 파견(1881)

김옥균·박영효 등이 1879년 일본에 파견한 이동인의 활동의 결과로 조선 조정은 일본의 개화실태를 시찰하기 위하여 일본국정조사단(紳士遊覽團)을 1881년 1월 파견하였다.<sup>45)</sup> 당시에는 1881년 위정척사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했으므로 시찰단의 朝士들은 모두 동래암행어사의 발령을 받고 비밀리에 동래에 집합하여 일본으로 향하게 되었다.<sup>46)</sup>

시찰단의 구성은 12개 반으로 편성하여 그 책임자는 각각 朝士 12명으로 구성하고, 조사 1명에게 대체로 隨員 2명, 通事 1명, 하인 1명을 배치하여 1개 반을 5명으로 구성했으며 시찰단의 총 인원은 62명이었다(시찰단 12개 반

45) 鄭玉子, 〈紳士遊覽團考〉(《歷史學報》 27, 1965).

李光麟, 〈開化僧 李東仁〉(앞의 책, 1973).

李用熙, 〈東仁僧의 行蹟(上)－金玉均派 開化黨의 形成에 沿하여－〉(《서울大國際問題研究所論文集》 장간호, 1973).

許東賢, 〈朝士日本視察團에 관한 研究〉(《韓國史研究》 52, 1986).

46) 《高宗實錄》, 고종 18년 12월 14일.

의 구성은 <표 2> 참조).

<표 2> 일본국정시찰단(신사유람단) 일행 일람표

朝 士	隨 員	通 事	下 人
趙 準 永	李 鳳 植 徐 相 直	文 順 錫	崔 允 伊
朴 定 陽	王 濟 膺 李 商 在	金 洛 俊	李 秀(壽) 吉
嚴 世 永	嚴 錫 周 崔 成 大	徐 文 斗	朴 春 鳳(奉)
姜 文 馨	姜 晉 馨 邊 宅 浩	金 順 伊	劉 福(卜) 伊
趙 秉 稷	安 宗 洙 俞 箕 煥	金基(箕)文(李章浩)	林 錫 奎
閔 種 默	閔 載 厚 朴 會 植	金 福 奎	李 正(貞) 吉
李 永	李 弼 永 閔 建 鎬	林 基(箕) 弘	金 五 文
沈 相 學	俞 鎮 泰 李 鍾 彬	金 永 得(正植)	尹 相 龍(商容)
洪 英 植	高永喜 咸洛基 全洛雲	白 福 周	鄭 用(龍)石(錫)
魚 允 中	俞吉濬 柳定秀 尹致昊 金亮漢	黃 天 彧	金 永 根
李 元 會	宋 憲 斌 沈 宜 永	李 壽 萬	金鴻達 李順吉
金 鋪 元	孫 鵬 九	金 大 弘	

일본국정시찰단의 12개 반은 다음과 같이 시찰대상을 분담하여 정밀한 시찰을 하였다.

朴定陽(참판) : 내무성 · 농상성

閔種默(승지) : 외무성

魚允中(교리) : 대장성

趙準永(참판) : 문부성

嚴世永(승지) : 사법성

姜文馨(승지) : 공부성

洪英植(참의) : 육군 · 체신

李 永(승지) : 세 관

趙秉稷(승지) : 세 관

李元會(부사) : 군 사

일본국정시찰단의 파견은 3개월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각 부문에서 정밀한 視察報告書와 聞見事件錄이 작성 제출되어 장차 조선의 개화정책에 많은 참고자료를 수집하게 되었으며, 시찰단에 참가한 일행들 가운데 개화를 지지하는 인사들이 다수 나와 개화세력이 크게 강화되었다.

### (3) 영선사(병기학습 유학생사절단)파견(1881)

김윤식 · 어윤중 등의 개화파가 중심이 되어 중국에 들어와 있는 서양의 선진

과학기술 및 병기 제조기술을 학습하고 도입하기 위해 조선조정은 청국측과 약정을 체결하고 1881년 9월 26일 중국의 天津機器局에 공학도를 파견하게 되었다.<sup>47)</sup> 당시 천진기기국은 주로 독일 쿠루프회사의 서양기술이 도입되어 있었다. 이 때의 領選使 일행은 관리 12명, 隨從 19명, 학도 20명, 工匠 18명 등을 비롯해서 모두 69명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각 관리와 학도들이 사사로이 거느린 하인들이 14명이었으므로,<sup>48)</sup> 실제의 단원수는 83명이나 되었다. 이 때 파견된 영선사 일행의 단원 구성과 천진기기국의 배치상황은 다음과 같다.<sup>49)</sup>

領選使	金允植	從事官	尹泰駿
別遣堂上	卞元圭・李根培	官辯	白樂倫
譯官	崔性學 등(이상 관리 12명, 수종 19명)		
工匠	金元永 등 18명	學徒	高永喆 등 20명

〈표 3〉 영선사행 학도와 공장의 학습 일람표

學堂及廠名		학도 · 공장명		학 습 내 용		비 고		
東	水 師	학도	高永喆	專習洋文 · 洋語	銅冒 · 後膛鎗子の 製법	학도 金光練은 水 師學堂에서		
	水 雷	"	崔圭漢					
	銅 冒	공장	朴永祚					
	銅 冒	학도	高永鎰 · 金光練					
	礮 水	공장	河致淡					
	礮 水	학도	金台善					
局	機 器	공장	黃貴成	黃礮 · 硝礮 · 鹽礮 · 水礮 礮 등의 製법 修造機器의  조작법	書本에 의한 모형제조법 화약제조법	火藥廠八局 중 燒 炭局에 있었음 水師學堂 자퇴		
	機 器	"	崔志亨 · 宋景和 · 安應龍					
	木 樣	"	張榮煥					
	火 藥	"	金興龍 · 金德鴻					
	化 學	학도	李熙民					각항 약물제조법 水電砲의 電理
	電 氣	"	趙漢根					

47) 權錫奉, 〈領選使行에 대한 一考察〉(《歷史學報》 17・18, 1962) 참조.

48) 金允植, 《陰晴史》 상, 고종 18년 10월 29일(국사편찬위원회 편, 14쪽).

49) 金允植, 《陰晴史》 상, 고종 19년 2월 11일(83~86쪽) 참조.

南 局	畫 圖	학도 趙台源・安昱相	諸廠機器의 제도법	
	電 氣	" 安淩・尙濤	陽電氣의 이론	
	鑪 沙	공장 崔同順・金泰賢	銅鐵의 鎔鑄法	공장 朴奎性이 일
	機 器	" 金元永・韓得俊	機器의 輪流	시 分隸되었음
	木 樣	" 金聖元	東局과 같음	공장 皮三成이 일
	火 器	학도 李南秀	화약제조법	시 分隸되었음

그러나 중국에 파견한 이 병기학습 유학생은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고 1년 만에 학습이 중단되어 1882년 10월 모두 철수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① 1882년 6월 본국에서 임오군란이 일어나자 그 소식을 들은 유학생들이 낙심하여 학습장에 나가지 않고 귀국을 원했으며, ② 38명의 유학생 중 절반인 19명이 학습 도중에 탈락하여 이미 귀국해 버렸고, ③ 경비·재정조달이 불충분했으며, ④ 서울에 機器廠을 설치하려는 계획이 수립되었으므로 본국에서도 학습이 가능한 것으로 예견되었기 때문이었다.

영선사 일행의 파견은 짧았으나 그 영향은 상당히 컸다. 즉 ① 이 때 파견된 공학도들에 의하여 처음으로 서양의 선진 과학기술이 체계적으로 학습되어 도입되었으며, ② 각종 서양식 현대기계<sup>50)</sup>와 과학기술 서적이 대량으로 도입되었고,<sup>51)</sup> 우리 나라 최초의 근대 병기공장인 기기창이 1883년 3월 서울 삼청동 북창에 건립되었다.<sup>52)</sup>

#### (4) 신식 육군(별기군)의 창설(1881)

개화파는 개항 후 국방을 강화하고 근대화하기 위하여 개화파 別選軍官尹雄烈이 중심이 되어 5군영으로부터 지원자 80명을 선발해서 한국 최초의 신식 육군인 別技軍을 창설하였다.

별기군 당상에는 閔泳翊, 정령관에 韓聖根, 좌부령관에 윤웅렬, 우부령관에 金魯完, 참령관에 禹範善이 임명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윤웅렬이 이를

50) 金允植, 《陰晴史》 하, 고종 19년 10월 15일(212~213쪽) 참조.

51) 金允植, 《陰晴史》 하, 고종 19년 4월 26일(144~145쪽) 참조.

52) 金允植, 《陰晴史》 하, 고종 20년 4월(225쪽).

주도하였다. 처음에는 중국으로부터 훈련교관을 초빙할 계획이었으나 시일이 오래 걸리고 일본측의 추천도 있었으므로 서울의 일본공사관에 근무하는 공병소위 호리모토(堀本禮造)를 교관으로 초빙하여 서양 신식 군사훈련을 시작하였다.<sup>53)</sup>

별기군은 신식 장충에 초록색 신식 군복을 착용하고 신식 군대로 처음에는 큰 성과를 내기 시작했으나, 1년 만에 ‘임오군란’이 일어나서 구식 군대의 습격을 받아 교관 호리모토는 피살되고, 1882년 6월 폐지되었다. 그러나 별기군의 창설은 그 후 신식 군대창설의 기초가 되었다.

#### (5) 기무처의 설치(1882)

개화파들은 정책을 입안하는 새로운 근대적 기구로서 1882년 7월 25일 정부 안에 機務處를 신설하였다. 기무처는 정치·경제·사회·군사·법률 등 모든 군국기무에 대하여 정책을 입안해서 의정부를 통하여 국왕의 재가를 받은 다음 집행하도록 하는 합의제 정책의결기관이었다. 설립과 동시에 기무처 당상에는 조영하·김병식·김홍집·김윤식·홍영식·어윤중 등 7명이 임명되었다.<sup>54)</sup> 이 중에서 조영하·김병식을 제외하고는 5명이 모두 개화파였으므로, 기무처는 개화정책을 추진하는 중요한 기구의 하나가 되었다.

1882년의 기무처는 갑신정변의 실패로 폐지되었지만, 그 후 1894년에 갑오경장을 추진한 軍國機務處로 계승 발전되었다.

#### (6) 감생청의 설치(1882)

개화파들은 불필요하면서 방만해진 행정기구들을 개편 정리하고 재정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한시적 기구로 1882년 10월 20일 減省廳을 설치하였다.<sup>55)</sup> 이것은 현대어로 번역하면 행정개혁위원회와 유사한 것이었다. 감생청의 총책임자에는 개화파인 어윤중이 임명되었고, 그 실무관리 8명 중에는 유흥기

53) 《日本外交文書》14권, 문서번호 153, 朝鮮國ニ於ケル創銃隊創設ノ件, 365~369쪽 참조.

54) 《高宗實錄》, 고종 19년 7월 25일.

55) 李鉉淙, 〈高宗때 減省廳 설치에 대하여〉(《金載元博士回甲紀念論叢》, 1969).

가 副司勇(종9품)으로 임명되어 활동하였다.<sup>56)</sup>

감생청은 1883년 5월 10일까지 6개월밖에 존속하지 못했지만, 불필요하게 비대해져서 무위도식하는 관료들로 가득찬 불필요한 관청들, 왕족들과 공신 후예들을 위한 불필요한 관청들, 왕실의 낭비생활을 위하여 설치된 불필요한 궁정내 관청들을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관리를 문벌에 구애됨이 없이 인재를 뽑아 등용하도록 건의하는 등 상당히 적극적인 개혁활동을 하였다.<sup>57)</sup>

### (7) 대외적 균세정책의 실시(1882)

개화파는 일본과의 1876년 ‘조·일수호조규’가 불평등조약일 뿐만 아니라 일본 1개국과만 개국통상을 실시하는 것이 나라를 위해 불리함을 알고, 세력 균형(balance of power)을 세우는 균세정책 실시의 일환으로 다른 서양국가들과의 개국통상을 추구하였다.

개화당의 균세정책으로서는 일찍이 이동인이 1880년에 일본에서 조·미수호통상조약의 체결을 추진하고 준비한 일이 있었다.<sup>58)</sup> 이어서 관세설정과 일본 견제를 위하여 서양 각국과의 수호통상조약의 체결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던 개화파는 영선사 김윤식과 일본국정시찰단으로 일본에 갔다가 천진에 들린 어윤중에게 청국의 이홍장이 일본 견제를 위해 조·미수호통상조약을 권고하자 이를 기꺼이 받아들여 1882년 4월 4일(양력 5월 22일)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였다. 1883년 5월에 초대 미국공사 푸트(Lucius H. Foote)가 서울에 오자, 조선조정은 ‘報聘使’라는 이름으로 천선사절단을 미국에 파견하게 되어 정사에는 민영익, 부사에는 홍영식, 종사관에는 서광범, 수원에는 변수와 유길준을 임명하였는데, 민영익을 제외하고는 모두 개화파들이었다.<sup>59)</sup>

이어서 1883년 10월 27일(양력 11월 26일)에는 ‘조선·영국수호조규’와 ‘조

56) 《備邊司謄錄》, 고종 19년 10월 19일 참조.

《高宗實錄》, 고종 19년 10월 20일 참조.

57) 《高宗實錄》, 고종 19년 2월 29일 참조.

58) 李光麟, 앞의 글(1973) 참조.

59) 金源模, 《近代韓美交涉史》(弘盛社, 1979).

柳永益, 〈朝美條約(1882)과 初期韓美關係의 展開〉(《東洋學》 13, 1982).

선·독일수호조규’, 그리고 1884년 윤5월 4일(양력 6월 26일)과 윤5월 15일(양력 7월 7일)에 ‘조선·이태리수호조규’와 ‘조선·러시아수호조규’가 각각 체결되어 서양열국과의 전면적 개국통상이 시작되었는데, 이것은 개화파들의 군세정책의 실시 노력과도 관련되어 있었다.

#### (8) 해관의 설치(1882~1883)

조선조정은 1876년 조·일수호조규를 체결할 때 일본측에게 기만당하여 불평등조약을 체결하고 無關稅무역을 인정하였다. 개화파들이 조정에 진출하자 이를 개정하고 해관을 설치하기 위한 활동이 전개되었다.<sup>60)</sup>

김홍집은 1880년 5월 수신사로 일본에 건너가 일본측과 관세설정을 교섭하고, 수입상품에 5%를 과세하는 ‘관세세목초안’을 일본측에 제안하였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회피만하고 전혀 교섭에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 김홍집은 주일청국공사에게 협조를 청한 결과 일본이 근일 서양 각국과 조약을 개정하여 관세율을 평균 30%까지 올리려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였다. 김홍집은 일본이 불응하는 상태에서 저율의 관세율을 교섭하는 것보다 후일 고율의 관세율 교섭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하여 황준헌의 《조선책략》만 얻어 가지고 귀국하였다.

통리기무아문은 제2차로 1881년 11월 조병호를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하여 관세설정을 교섭케 하였다. 이 때 조병호는 수입품목을 6종으로 분류하여 10%를 기준으로 하고 품목분류에 따라 5%~35%의 관세를 부과하는 초안을 일본측에 제안하고 협상을 벌였다.<sup>61)</sup> 그러나 일본정부는 역시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

김홍집·김윤식 등 개화파는 일본측이 끝까지 관세설정에 응하지 않으므로 이제는 구미제국과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할 때 관세를 설정하여 이를 일본에게도 적용하는 우회 전략을 채택하였다. 그리하여 1882년 4월 체결된 조

60) 高柄翊, 〈穆麟德의 顧聘과 그 背景〉(《震檀學報》25·26·27, 1964).

李鉉淙, 〈監理署 研究〉(《亞細亞研究》11-3, 1968).

金敬泰, 〈開港直後 關稅權 回復問題〉(《韓國史研究》8, 1972).

夫貞愛, 〈朝鮮海關의 創設 經緯〉(《韓國史論》1, 서울大 國史學科, 1973).

61) 《朝日稅議》(규장각 고문서), 辛巳新擬海關稅則 참조.



선·미국수호조규의 제5관에 조선측이 주장한 관세자주권과 10% 기준의 관세율을 명기하는데 성공하였다. 이에 의하면 수입관세는 일용품이 10%, 사치품은 30%로 정하고, 수출세는 5%로 정했으며, 선박세는 매 톤당 5전으로 정하였다. 조선조정은 1882년 6월 14일 金弘集·金輔鉉을 통하여 일본정부에게 미국과 동율의 관세율을 적용할 것을 촉구하였다.<sup>62)</sup>

개화파들의 활동에 의하여 해관이 설치되고 대외통상에 관세가 설정되었으나, 곧 불행한 일이 일어났다. 임오군란 이후 청국의 속방화 적극 간섭정책 속에서 민비정권은 이홍장이 추천한 독일인 뮐렌도르프를 해관의 총세무사 겸 통리고섭통상사무아문의 협판에 겸임시키게 되었다. 뮐렌도르프는 김윤식·김홍집·어윤중 등 관세문제에 정력을 쏟았던 조선 개화파들의 자문을 전혀 받지 않고 독단으로 일본과 서양 각국과의 관세설정에서 그들에게 아첨하여 평균 5% 기준의 저율 관세율을 약정해 버리고 말았다.

해관의 수세사무는 1883년 11월부터 시행되었으나, 청국의 속방화 적극 간섭정책으로 말미암아 이원체제로 운영되었다. 즉 조선정부는 부산·원산·인천에 監理署를 설치하고 감리를 임명하여 이를 관리했으며, 총세무사 뮐렌도르프는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 稅務司를 두어 관세를 장악하려 하였다.

### (9) 근대학교의 설립(1883)

개항 후 신지식의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하게 되자 근대적 신식 학교의 설립도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개항장 원산에서는 처음에 개량서당을 설립하여 자제들을 교육하다가 1883년 봄에 개화파관료인 덕원부사 겸 원산감리 鄭顯奭과 원산의 민간인들이 합작하여 근대학교로서 元山學舍를 설립하였다. 원산학사는 설립 후 운영에 성공하자 정현석이 무예반의 자격인준 때문에 1883년 8월 28일자로 정부에 보고를 올렸으며, 정부는 10월 20일 이를 승인하였다.<sup>63)</sup>

이 학교는 당시의 긴급한 필요에 따라 학생을 문예반과 무예반으로 나누

62) 《通商新約附箋條辨》(규장각 고문서) 참조.

63) 愼鏞廈, 〈우리나라 最初의 近代學校設立에 대하여〉(《韓國史研究》 10, 1974) 참조.

고, 정원을 처음에는 문예반 50명, 무예반 200명으로 하였다.<sup>64)</sup> 교육과목은 공통과목으로서 時務의 긴요한 과목으로 산수·물리로부터 각종 기계기술·농업·양잠·광산채굴 등을 가르쳤고, 특수과목으로서 문예반은 經義를 무예반은 병서와 사격술을 교육하였다.<sup>65)</sup> 교재로서는 처음에는 ① 瀛志, ② 聯邦志, ③ 奇器圖說, ④ 日本外國語學, ⑤ 法理文, ⑥ 大學豫備門, ⑦ 瀛環志略, ⑧ 萬國公法, ⑨ 心史, ⑩ 農政新編 등이 사용되었다. 교육기간은 처음에는 1년을 단위로 했으나 뒤에 소학교 기준으로 연장되었다.

원산학사를 설립할 때에는 원산의 민간인 118명이 개별적으로 도합 5,325냥을 출재했으며, 원산주민들이 의무적으로 240냥을 각출했고, 매년 200냥의 경비를 보조하기로 하였다. 같은 때에 설립된 원산상업회의소도 50냥을 보조하였다. 개화파관료로서는 덕원부사 겸 원산감리 정현석이 100냥, 서북경략사 어윤중이 100냥, 승지 鄭憲時가 100냥 등 도합 300냥을 기증하였다. 원산 해관에 고용되어 있던 외국인들도 이에 찬동하여, 중국인·영국인·미국인·덴마크인 각 1명이 도합 760냥을 찬조하였다.<sup>66)</sup> 외국세력과 직접 부딪치는 개항장에서 자발적으로 국민들과 개화파관료들이 단결하여 1883년에 한국 최초의 근대학교인 원산학사를 설립한 것은 큰 의의를 가진 일이었다.

또한 1882년 서울에서는 군국기무아문 안에 영어학교로서 통역관 양성을 위하여 同文學이라는 학교를 설립하였다.<sup>67)</sup> 동문학은 어학도 약 40명을 선발하여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누어서 영어·일본어·서양산수 등을 교육하였다. 학도들의 학용품·교재·기숙시설은 통리기무아문에서 공급하였다. 동문학은 처음에는 영어교사를 구하지 못하여 중국인 교사를 채용했다가 1883년 7월 영국인 헬리팩스(T. E. Hallifax, 奚來百士)를 고빙하여 본격적으로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하였다.<sup>68)</sup>

1883년 일반학교로서의 원산학사와 영어학교로서의 동문학의 설립은 개화파들에 의하여 근대적 신식 학교가 설립되기 시작했음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64) 《春城府志》, 興學 참조.

65) 《德源府啓錄》1책, 고종 20년 8월 28일.

66) 《春城府志》, 興學 참조.

67) 金允植, 《陰晴史》 하, 고종 19년 11월 21일(224쪽 참조).

68) 《漢城旬報》15호, 1884년 12월 22일.

## (10) 근대신문의 발간(1883)

개화파들은 1880년대에 들어서자 박영효를 중심으로 신문 발간을 주창해 오다가 그가 한성판윤에 임명된 1883년 1월 국왕의 승인을 받았다. 박영효는 유길준에게 신문의 발간업무를 맡겼으며 후자는 漢城府新聞局章程과 創刊辭와 창간호에 실릴 원고까지 준비했으나, 전자가 수구파의 미움을 받아 광주 유수로 좌천됨으로써 이 신문의 발간계획은 중단되었다.<sup>69)</sup>

신문 발간계획을 이어서 인계받은 것은 김윤식이었다. 그는 신문 발간을 통리기무아문에서 실행하고자 하여 신문 발행부서로 博文局을 신설하고 그 책임자로 金寅植, 편집부원으로 張博·吳容默·金基駿 등을 임명했으며, 번역부원으로 일본인 이노우에(井上角五郎)를 고용하였다.

박문국은 김인식의 책임하에 1883년 10월 1일(양력 10월 30일) 한국 최초의 근대신문인 《漢城旬報》 창간호를 발행하였다. 신문의 체제는 가로 25cm 세로 9cm 크기의 8면에 달하고 10일 만에 1호씩 발행되어 오늘날의 잡지 비슷한 체제였다. 내용은 순한문을 사용하고 정부소식의 ‘內國記事’와 외국소식의 ‘各國近事’와 개화교양을 위한 ‘解說記事’로 신문을 편집하였다.<sup>70)</sup> 《한성순보》는 창간 후 1호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10일마다 1호씩 발간되다가 1884년 10월 17일 갑신정변으로 박문국이 파괴되어 신문 간행이 중단되었다.

《한성순보》의 발간은 관리들과 국민들에게 세계정세와 국내사정의 변화를 상세히 알게 하고 나라를 개화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 (11) 근대적 산업시설의 대두와 고취

개화파들은 개항 후 자주부강한 근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근대적 산업을 일으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를 적극 고취하였다. 개화파들이 주장하고 고취한 근대적 산업시설의 조직은 근대적 會社형태의 것이고, 공업은

69) 《俞吉濬全書》4권, 漢城府新聞局章程 및 創刊辭 참조.

70) 李光麟, 〈漢城旬報·漢城周報에 대한 一考察〉(《歷史學報》38, 1968).

趙恒來, 〈韓末新聞의 發達과 論調에 관한 高찰〉(《韓沽勛博士停年紀念史學論叢》, 1981).

鄭晉錫, 〈漢城旬報·周報에 관한 연구〉(《新聞研究》36, 1983).

증기기관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공장제 생산기업을 의미한 것이었다. 개화파들의 이러한 주장과 활동이 부분적으로 채택되어 통리기무아문은 회사의 설립을 적극 장려하고, 민간이 회사를 설립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각 승인할 뿐 아니라 전국에 훈령을 내려 잡세징수나 그 밖의 자유로운 영업행위를 저해하는 모든 제약을 철폐하도록 해서 회사를 보호하였다.<sup>71)</sup>

이에 따라 1880년대에 들어서자 서울과 전국 각 지방에서 각종의 근대적 회사들이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1880년부터 1884년 갑신정변 직전까지 설립된 근대적 회사형태의 상공업 기업체들을 찾아 정리해 보면 다음의 <표 4>와 같이 약 26개에 달하였다.

<표 4> 1880~1884년의 근대적 상공업 기업체

工 業 企 業 體		
명 칭	업 종	창립 또는 자료에 처음 보이는 일자(모두 음력임)
① 機器廠	병기공장	1883. 3
② 捲烟局	捲煙제조공장	1883
③ 順和局	"	"
④ 釀春局	양조공장	"
⑤ 長春社	"	"
⑥ 豆餅局	두부공장	
⑦ 金化烟務局	捲煙공장	1883. 8. 18 창립
⑧ 鑄一所	철공장	1883. 9. 6
⑨ 博文局	인쇄공장·출판	1883. 9. 10
⑩ 廣仁社	"	
⑪ 三湖玻璃局	玻璃공장	1883. 3. 25
商 會 社		
⑫ 大同商會	각종물산	1883. 8. 15
⑬ 長通商會	"	1883
⑭ 慶尙道金泉社商會	"	1884. 2. 20 창립
⑮ 居奇社	"	1884. 4. 7 "

71) 《統理機務衙門日記》1책, 1883년 8월 28일·29일.

⑮ 安東乃成里商會	각종물산	1884. 4. 25 창립
⑯ 南部義信號招商社	"	"
⑰ 義信會社(義信社)	"	1884. 5. 14 창립
⑱ 太平商會社	"	1884. 閏 5. 25 창립
⑳ 慶尙道布木商會社	건직물상업	1884. 6. 15 창립
㉑ 博林社	각종물산	1884. 6. 22 "
㉒ 永信商會	"	1884. 8. 30 "
㉓ 蠶桑公司	건직물상업	1884. 9. 1 "
㉔ 順信商會	각종물산	1884. 9. 6
㉕ 順信昌商會社	"	1884. 9. 26
汽 船 海 運 會 社		
㉖ 汽船會社	기선해운업	1884. 10. 14 창립

\* ①②④~⑥⑬ 金允植, 《陰晴史》 하, 고종 20년 4월~6월.

③ 《日本官報》, 명치 17년 3월 21일.

⑦~⑨⑫ 《統理機務衙門日記》 1책, 고종 20년 8·9월.

⑩ 《漢城旬報》 15호, 개국 493년 갑신 2월 21일.

⑪⑭~⑰ 《統理機務衙門日記》 2책, 고종 21년 2월~5월.

⑱⑳~㉕ 《統理機務衙門日記》 3책, 고종 21년 5월~10월.

위와 같은 상공업 기업체들은 모두 새로이 설립된 근대적 기업체만을 가려 열거한 것이다.

농업부문에서도 1884년에 農桑公司가 설치되고, 근대적 양잠법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였다. 또한 외국의 농법과 양잠법을 소개하고 보급할 목적으로 개화파들이 각종의 새로운 농서를 편찬하기 시작하여, 安宗洙의 《農政新編》(1881), 李祐珪의 《蠶桑撮要》(1884) 등이 간행되었다.<sup>72)</sup>

특히 1884년 農務牧畜試驗場의 설립은 획기적 사업이었다.<sup>73)</sup> 1883년 보빙사가 미국에 파견되었을 때 洪英植이 중심이 되어서 농업시험장 설치의 희망을 표시하고 협조를 약속 받은 다음 귀국하자 국왕에게 요청하여 동대문

72) 李光麟, 〈安宗洙와 農政新編〉(《歷史學報》 37, 1968) 참조.

73) 李光麟, 〈農務牧畜試驗場의 設置에 대하여〉(《金載元博士回甲紀念論叢》, 1969) 참조.

밖 籍田을 받고 여기에 수행원 崔景錫을 책임자로 하여 농무목축시험장을 설립하였다. 1884년 봄에는 미국에 주문한 18개 짐짝의 농기구도 도착하였다. 이 농업시험장에서는 각종 농작물과 채소를 재배하고, 재래종과 최경석이 미국에서 가져온 신품종을 재배하여 첫해에 큰 성공을 거두었다.<sup>74)</sup> 최경석은 여기서 수확한 개량 신품종을 재배법과 사용법을 설명하는 해설서를 첨부하여 305개 지방군현에 송부해서 재배하도록 권장하였다.

최경석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목축도입과 가축개량을 시도하였다. 그는 미국으로부터 젖소·황소·말·돼지·양의 신품종을 도입했으며, 가축의 품종 개량 및 사육방법의 개선과 함께 낙농제품의 생산도 계획하였다. 그러나 1886년에 최경석이 사망하여, 이 농업시험장은 침체기에 들어갔다.

또한 증기선의 해운부문에서도 1884년에 汽船會社가 설립되어 큰 발전이 이루어졌다. 기선회사는 통리기무아문의 전운국에서 미국상인과 계약하여 3척의 기선(海龍號·蒼龍號·顯益號)을 구입하여 설립했으며, 연해의 화물운송과 조세곡수송, 그리고 군대 및 관용의 화물운송도 담당하였다.<sup>75)</sup>

이 밖에도 개화파의 활동으로서 주목할 것으로는 김옥균·어윤중 등에 의한 수많은 유학생의 해외파견, 박영효가 한성판윤으로 있을 때의 治道局 설립과 종로로부터 동대문까지의 근대식 도로확장사업, 근대적 경찰제도의 수립, 홍영식이 중심이 된 우정국 설립과 근대적 우편제도의 창설, 개화파들이 추진한 복식제도의 개혁과 간소화 등이 중요한 것들이었다.

개화파들의 감신정변 이전까지의 이러한 개화활동과 성과는 1882년 후반부터는 서울에 주문한 청군 및 청국측의 간섭과 저지 방해를 물리쳐 가면서 많은 노력을 투입하여 이룩한 성과였다.

〈愼鏞廈〉

74) 《試驗場各種目錄》(규장각 도서) 참조.

75) 韓祐勳, 〈開港後 商業構造의 變遷〉(《韓國開港期の 商業研究》, 一潮閣, 1970), 226~227쪽.

## 2. 개화사상의 발전

19세기 중엽 이후 조선사회에 민족적 위기를 타개하려고 했던 사상에는 크게 위정척사사상·개화사상·동학사상이 있었다. 우선 위정척사사상은 18세기 후반 서학이 만연하자 정부 차원에서 正學을 숭상하고 異端을 배척한다는 기치를 내건 것에 그 연원을 두고 있다. 이 사상은 19세기 초부터 여러 차례의 천주교에 대한 박해를 거치면서 정부에서 위정척사정책의 이념으로 채택되었고, 재야유림에서 李恒老·奇正鎭 등에 의해 체계적으로 형성되어 발전해 나갔다. 반면, 개화사상은 19세기 중엽부터 몇몇 개명지식인들에 의해 형성되기 시작하여<sup>1)</sup> 몇 단계를 거쳐 발전해 나갔다.<sup>1)</sup>

- 
- 1) 개화사상의 형성시기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설이 있는데, ① 1850년대 형성설과 ② 1860년대 형성설, 그리고 ③ 1870년대 형성설이 있다. ①은 오경석의 개화사상과 개화활동을 연구하여 개화사상이 1853~1859년(철종 4~10)의 시기에 형성되었다고 하였다(신용하, <吳慶錫의 開化思想과 開化活動>, 《歷史學報》 107, 1985). ②③은 박규수의 사상과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1870년대 전반기에 개화사상이 형성되었다고 주장하였다(이광린, 《韓國史講座》 V 近代篇, 一潮閣, 1981), 그 뒤 申櫟이 《海國圖志》를 참고로 하여 水雷砲를 제작한 1860년대 후반기로 보아야 할 것 같다고 하였다(이광린, <開化思想의 形成과 發展>, 《韓國史市民講座》 4, 一潮閣, 1989).
- 1) 이광린은 개화사상과 운동의 발전단계를 ‘개화를 개국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한 1870년대’, ‘서양과학기술의 도입을 통하여 국가의 부강을 꾀한 1880년대’, ‘국권과 민권을 주장한 1890년대’의 3단계로 구분하였다. 金榮作은 개항 이후부터 갑신정변까지를 전기, 그 이후를 후기로 구분하고, 다시 이를 서양의 洋砲·洋物에 착안한 단계, 보다 넓은 과학기술 일반에 착안한 단계, 서양의 정치·경제·교육 등 제도적 방법과 함께 서양적 이념과 가치를 인정한 단계로 나누었다. 姜在彦은 제1단계(1872~1884)－개명적 양반 소장파 중심의 단계, 제2단계(1896~1898)－대중적 정치운동의 단계, 제3단계(1906~1911)－구국계몽운동의 단계로 나누었다. 金敬泰는 크게 전기(1874~1894)와 후기(1896~1910)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제1기(1874~1879), 제2기(1880~1884), 제3기(1885~1894), 제4기(1896~1904), 제5기(1905~1910)의 5단계로 나눌 것을 제안하였다. 鄭昌烈은 개화사상·개화운동의 시기를 1876년(고종 13)부터 1910년(융희 4)까지로 설정하고 1905년(광무 9) ‘을사늑약’을 경계로 두 단계로 구분하였다. 李完宰는 개화사상을 초기와 후기로 나누어 ‘초기개화사상’은 1870년대 개화파의 형성기부터 1884년 갑신정변까지 전개된 개화사상을 말하고, 그 이후 만민공동회가 해체되기까지를 ‘후기개화사상’이라 하였다. 이러한 개화사상의 발전단계

개화사상의 연원은 멀리 조선 후기 實學과 西學에 그 뿌리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실학자들이 1801년(순조 1) 신유박해로 엄청난 탄압을 받게 되자 실학과 서학은 크게 위축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조건 아래서도 丁若鏞과 崔漢綺를 비롯한 몇몇 선각자들은 근대지향적이거나 근대적인 사상을 가지고 장차 도래할 조선의 현실을 걱정하면서 그 사상을 정리하고 있었다. 정약용이 19세기 초엽에 그 전의 실학사상을 집대성하였다면, 최한기는 19세기 중엽에 실학에서 개화에로 성큼 다가서서 서양의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좋은 정치나 법제까지도 수용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런가 하면 朴珪壽는 1860년대 말에 자기집 사랑방에 청년지식인들을 모아 놓고 그의 할아버지 朴趾源이 지은 《燕巖集》을 강독하는 등 이른바 북학파의 실학사상을 계승하여 발전시켰다. 또한 박규수는 金玉均 등에게 地球儀를 돌리면서 “오늘날 중국이 어디에 있는가. 저쪽으로 돌리면 아메리카가 중국이 되고 이쪽으로 돌리면 조선이 중국이 되어 어느 나라든 한 가운데로 돌리면 중국이 된다. 오늘날 어디에 정해진 중국이 있단 말인가”<sup>2)</sup>라고 하면서 청년지식인들이 의식의 전환을 가져오게 하였다.

한편 1840년대 중반 이후 《海國圖志》·《瀛環志略》 등 이른바 신서가 조선에 들어오자, 1850년대부터 이미 일부 지식인들은 이를 깊이 연구하기 시작하여 새로운 지식을 흡수하였다.<sup>3)</sup> 吳慶錫은 역관으로 여러 차례 북경을 다녀왔는데, 그는 《해국도지》·《영환지략》 등의 새로운 서적을 다수 구입하여 돌아와 이를 친구 劉洪基에게 주고 깊이 연구하게 하여 개화사상을 형성시켰다.<sup>4)</sup> 최한기 역시 《해국도지》와 《영환지략》을 깊이 연구하여 동서의 풍토와 물산, 관습과 정교를 망라하여 《地球典要》를 편찬하였다. 이처럼 1850년대부터 오경석·유홍기·최한기 등은 조선의 개화를 위하여 이른바 신서적을 연구하여 개화사상을 형성하였던 것이다.

에 대한 정리는 이완재의 《初期開化思想研究》(民族文化社, 1989, 19쪽) 참조.

2) 申采浩, 〈地動說의 效力〉(《龍과 龍의 大激戰》, 1927; 《改訂版 丹齋申采浩全集》 하, 1987, 384쪽).

3) 李光麟, 〈「海國圖志」의 韓國傳來와 그 影響〉(《改訂版 韓國開化史研究》, 一潮閣, 1985).

4) 慎鏞度, 〈吳慶錫의 開化思想과 開化活動〉(《歷史學報》 107, 1985).



이러한 개화사상은 박규수·오경석·유홍기·최한기 등을 중심으로 실학사상을 계승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중국을 통한 서구학문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다. 특히 개화사상가들의 사상 속에는 박지원·朴齊家 등 북학과 실학자나 정약용 등 근기납임 실학자들의 실학사상의 이용후생론과 부국강병론이 면면히 흐르고 있었고, 여기에 서양학문, 특히 과학기술부문이 포함된 서학이 용해되어 있었던 것이다.

한편 박지원 등 북학파의 실학사상을 이은 박규수 이외에도 金正喜·俞莘煥 등의 영향을 받은 申櫨·姜瑋·金弘集·魚允中·閔台鎬·韓章錫·金晩植·金允植·南廷哲 등의 개명지식인들이 개항 전후에 관료로 진출하여 여러 방면에 걸쳐 개화사상을 골고루 발전시켜 나가기도 하였다.

개화사상의 발전과 함께 1876년(고종 13) 개항 전후에는 개화파가 정치세력으로 형성되었고, 1880년대 초에는 개화의식이 확산되어 관료나 재야유생들 사이에서는 東道西器論이 일어났다. 그리고 1882년 임오군란 뒤에는 개화파 내부에서도 정치적·사상적 차이 때문에 온건개화파와 급진개화파로 분기되어 두 파 사이에는 시국인식과 개혁방법론을 놓고 그 대립이 뚜렷하게 드러났다.<sup>5)</sup> 그러다가 1884년 10월 급진개화파에 의한 갑신정변이 일어났고, 이 때 급진개화파는 일본의 메이지유신(明治維新)을 모델로 하여 서양의 기술은 물론, 사상·제도까지도 받아들여 조선의 전통적인 정치사회체제를 개혁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온건개화파는 청국의 洋務運動을 모델로 하여 서양의 과학기술부문만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사상이나 제도는 고수하자고 하였다.

1890년대 후반이 되면 개화사상은 독립협회의 활동으로 일반 민중에까지

---

5) 1880년대 개화파를 온건개화파와 급진개화파로 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전통적인 입장에서는 개화파를 사대당파와 독립당으로 구분하였다. 이에 대해 姜在彦은 수구파에 대한 개화파의 자세에 따라서 ‘온건적 개화파’ 및 ‘급진적 개화파’라는 규정보다는, 개화파 내부의 각각의 사상 내용에 의하여 ‘변법적’ 개화파와 ‘개량적’ 개화파로 나누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하였다(姜在彦, 《朝鮮の開化思想》, 岩波書店 1980, 202~213쪽). 한편 개화파를 동도서기론의 흐름과 문명개화론의 두 흐름으로 이해하는 견해(朱鎭五, 19세기 後半 開化 改革論의 構造와 展開,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1995)와 시무개화파와 변법개화파로 나누어 파악하는 견해(河元鎬, <개화사상과 개화운동의 역사적 변화>, 《한국근대 개화사상과 개화운동》, 신서원, 1998)가 있다.

파급되어 그들도 개화운동에 일부 참가하게 되었다. 그 뒤 일제의 침탈로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개화사상은 애국계몽운동의 중심사상으로 발전하였다.

### 1) 동도서기론의 대두

1880년대 초에 온건개화파와 급진개화파가 분기되기 전부터 개명지식인들은 이미 자기의 도를 지키면서 다른 나라의 우수한 과학기술을 받아들여자는 동도서기론의 경향을 띠고 있었다. 사실 동도서기론의 연원은 조선에 처음 서양의 천문학과 수학 등을 포괄하는 ‘西法’이 수용된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19세기 후반에 대두한 동도서기론의 직접적인 연원은 개항 이전에 박규수·최한기 등의 주장에서 살필 수 있다. 그러다가 1876년 개항 후 서양문물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되자 1880년대 초부터 동도서기론은 申箕善·郭基洛를 선두로 하여 제창되었다.

박규수는 1861년(철종 12)과 1872년(고종 9) 두 차례에 걸쳐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다. 그는 두 차례 중국을 다녀온 후 중국이 서양의 기술을 배워 무기와 선박을 자립적으로 생산하여 이익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국내에 소개하고 있다. 그는 이제 정부가 서양물품을 배척만 할 것이 아니라 서양대포와 화륜선 등을 수용하여 그 제조법을 익힘으로써 부국강병의 방법을 모색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특히 해양세력의 군사적 침입을 막기 위해 해안의 방어를 강화하고, 군사력의 증강과 군사무기의 개발을 도모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열강 속에서 고립을 면하기 위하여 미국 등 각국과 수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sup>6)</sup>

그런데 박규수의 이러한 주장이 있기 오래 전에 이미 최한기는 백성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기계를 제조하는 자가 있으면 높은 벼슬을 주어 앞날의 기술의 발달을 권장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그는 서양의 기계에 관심을 갖고 《神器圖說》·《陸海法》 등을 저술하여 서양의 기계를 적극 수용하여 소개하였다. 그리하여 서양의 이로운 기계인 선박·대포·풍차·직조기 등을

6) 孫炯富, 《朴珪壽의 開化思想研究》(一潮閣, 1997).

수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서양의 종교가 천하에 퍼지는 것은 근심할 필요가 없고 오직 실용적인 기계를 다 수용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걱정일 뿐이라고 하였다.<sup>7)</sup> 최한기는 서구 과학기술의 수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五倫과 仁義禮智는 천하에 보편적인 人道로서 바뀔 수 없는 도라고 하면서 서양인에게도 윤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들의 정치·법제까지도 수용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하였다. 따라서 최한기는 이미 동도서기론에서 일보 나아가 西道の 수용론으로까지 발전하고 있었다.

그러면 동도서기론의 논리구조는 어떤 것인가. 우선 동도서기론은 중국의 中體西用論이나 일본의 和魂洋才論과 마찬가지로 19세기에 서양 자본주의 열강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조선 지식인들이 제창한 논리였다. 즉 우리의 전통윤리와 도덕을 유지하면서 서양의 과학기술을 받아들여 부국강병을 이룩하려는 것이 그 주요 목적이었다. 이 동도서기론의 논리구조는 유교의 전통적 개념인 도와 기의 관계에 의해 설명된다. 즉 《周易》繫辭傳의 “形而上을 道라고 이르고 形而下를 器라고 이른다”는 말이 송대의 학자 程顥에 이르러 道器合一로 이해되고, 朱熹 역시 정호의 논리를 받아들여 도와 기의 합일을 부연 설명하였다.

조선조에 들어와 도와 기에 대한 인식은 李珥에 이르러 도와 기는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 후 기호학계에서는 이이의 도와 기는 서로 떨어질 수 없다는 이러한 논리가 지배적인 主氣論의 학풍이 지속되었다. 동도서기론자인 신기선과 김윤식은 둘 다 기호의 대표적 유학자인 任憲晦와 유신환의 문하에서 학업을 닦았다. 따라서 이들 역시 도와 기는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논리에 근거하여 도와 기는 서로 모순되지 않으며, 또 기를 떠나서는 도를 구할 수가 없다고 하였다.<sup>8)</sup> 특히 신기선은 도와 기에 의거하여

7) 崔漢綺, 《推測錄》 권 6, 推物測事, 東西取捨.

8) 그러나 동도서기론의 논리가 완벽한 것은 아니었다. 도와 기는 서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일면이 있지만, 서로 섞이지 않는다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그 어느 경우이든 서양의 도와 서양의 기도 서로 떨어지지 않고 서로 섞이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서양의 기를 받아들이면 자연히 그 기 속에는 서도가 들어 있는 것이다. 신기선이 동도서기론의 논리적 약점을 인식했는지는 모르겠

논리적으로 동도서기론을 제기한 인물이었다.<sup>9)</sup>

그런데 1881년 동도서기론이 상소의 형태로 공식적으로 표현된 것은 껍기락에 의해서였다. 그는 기계의 제조법이나 농업·임업에 관한 책으로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면 가려서 사용하기를 주장하였다. 그는 서양사람이 싫다고 하여 서양의 좋은 기술까지도 아울러 배척할 필요는 없다고 하였다.<sup>10)</sup> 이와 같이 껍기락은 우리 나라의 부국강병을 위하여 서양의 도덕과 기술을 분리하여 서양도덕은 배제하고 기술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것을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동양의 도덕과 서양기술이 서로 방해되지 않고 병존하는 관계가 설정되었다.

1876년 개항이 이루어진 후 정부에서는 새로운 국제질서를 파악하고 일본과 중국의 새로운 문물제도를 시찰하고 그들의 선진 과학기술을 배우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 일환으로 1880년 김홍집은 수신사로 일본에 갔다가 돌아올 때, 주일청국공사관 참찬관 黃遵憲으로부터 《易言》을 얻어 왔다. 그리고 황준헌이 지은 조선의 외교방략을 적은 《朝鮮策略》도 받아 왔다. 이 두 책은 1880년대의 개화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조선책략》에서는 ‘自強’이 특히 강조되었고, 《이언》의 내용에는 부국강병의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었다. 1840~50년대에 조선에 들어온 《해국도지》나 《영환지략》이 해외지식을 소개하는데 역점을 두었던 반면, 《이언》의 핵심사상은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산업을 개발하고 통상을 장려하여 부국강병을 이룩하고, 만국공법을 실시하여 외국과 대등한 외교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었다.<sup>11)</sup>

1881년에 조선정부는 紳士遊覽團(朝士視察團)과 領選使를 각각 일본과 청국에 파견하였다. 신사유람단은 일본에 건너가 정치·군사·교육·교통·농업·과학기술 등 다양한 선진문물을 자세히 탐지하고 돌아왔다. 또한 이 신사유람단의 파견과 함께 추진하였던 영선사의 일행에는 38명의 기술유학생이 선발되었다. 이들은 9월 26일 조선을 출발하여 12월 6일 天津에 도착하여 機器

으나 金漢燮에 의하여 그 약점은 날카롭게 지적되었다(金漢燮, 《吾南文集》 권 13, 雜著, 農政新書序條辨).

9) 申箕善, 《農政新編》序.

10) 《承政院日記》, 고종 18년 6월 8일.

11) 李光麟, 〈「易言」과 韓國의 開化思想〉(앞의 책, 1985) 참조.

廠의 南局 및 東局, 水師學堂, 水雷學堂에 배속되어 기술을 배웠다. 영선사 김윤식은 당시 국제관계 속에서 국방력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서구열강의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먼저 군사를 훈련하고, 군사를 훈련하기 위해서는 무기를 예리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sup>12)</sup> 따라서 영선사 일행의 주요 목적은 앞으로 조선의 부국강병을 이루기 위하여 화약·탄약의 제조법과 이와 관련되는 전기·화학·제련·기초기계학 등의 기술습득과 무기를 사오는 일이었다.

영선사 일행이 천진에서 기술교육을 받고 있던 도중에 이들은 본국에서 임오군란이 발생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에 김윤식은 1882년 7월에 일시 귀국하여 8월 5일 자신이 대신 지은 국왕 고종의 교서에서 정부가 동도서기론을 앞장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음과 같이 분명히 밝혔다.

저들(서양)의 敎는 사특하니 마땅히 음탕한 소리나 치장한 여자를 멀리하듯이 해야 하지만, 저들의 器는 이로우니 진실로 이용후생을 할 수 있다면 농업·양잠·의약·병기·배·수레의 제도는 무엇을 꺼려서 피하겠는가. 그 교는 배척하되 그 기는 본받는 것이 진실로 병행하여 거스르지 않는 것이다. 하물며 강약의 형세가 이미 크게 차이가 벌어졌는데, 만약 저들의 기를 본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저들에게 모욕당하고 저들이 욕보이는 것을 막을 수 있겠는가(《高宗實錄》, 고종 19년 8월 5일 및 金允植, 《雲養集》 권 5, 綸音布諭, 曉諭國內大小民人 壬午).

고종의 교서는 그 뒤 동도서기론의 확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것은 바로 18세기 말 정조 때부터 순조·헌종을 거쳐 흥선대원군 집권기까지 조선조정이 줄곧 견지해 오던 위정척사정책의 변화가 공식적인 형태로 나타난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 상징적 사건으로 흥선대원군이 1871년(고종 8) 신미양요 직후에 전국 고을에 세웠던 斥和碑가 뽑혀졌다. 그러자 전현직 관료는 물론 재야유생층에서도 동도서기론의 주장이 우후죽순처럼 대두되었다.

1882년 8월 23일 충주 幼學 池錫永은 서양의 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그것을 연구하고 교육시키는 연구기관의 설치를 주장하였다. 그는 《萬國

12) 《高宗實錄》, 고종 18년 11월 4일.

公法》·《朝鮮策略》·《普法戰紀》·《博物新編》·《格物入門》·《格致彙編》 등의 외국서적과金玉均의《箕和近事》, 朴泳敎의《地球圖經》, 安宗洙의《農政新編》, 金景遂의《公報抄略》 등은 개화에 필요한 서적들로서 시무를 위하여 필요하므로 여러 사람들이 열람하게 하자고 하였다. 또 각국의 수차·농기구·직조기·화륜기·무기 등을 사들일 것을 주장한 다음, 각 도의 모든 고을에 공문을 발송하여 그 고을의 뛰어난 유생과 관리를 각각 1명씩 선출하여 개화관계 서적과 기계를 연구하게 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지식영의 주장은 백성을 교화하여 아름다운 풍속을 이루고 이용후생을 기하려는 목적에서 제기된 것이었다.<sup>13)</sup>

또한 直講 朴淇鍾도 동도서기론에 입각한 소를 올리었다. 1882년 9월 5일에 올린 소에서 그는 서양의 교는 멀리하되 그 기는 이로운 것으로 이용후생에 도움이 되며, 따라서 농업·양잠·의약·무기·선박 등의 기술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sup>14)</sup>

한편 서울에 거주하고 있던 高穎聞은 보다 진보적인 개혁안을 제시하였다. 그의 개혁안은 모두 7개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서양의 여러 나라에 사절을 파견하여 그 나라의 풍속과 경제를 살펴보고 우의를 두텁게 한 뒤, 숙련된 여러 분야의 기술교사를 초빙하여 우리 나라 백성들로 하여금 서양의 기예를 학습시킬 것, 둘째 정부 외의 기관으로 公議堂을 따로 설립하고 時務를 아는 인사를 특별 채용하여 시무에 진념케 할 것, 셋째 광산을 개발할 것, 넷째 50호를 1區로 편제하여 1구에 區長 1명을 뽑아 정하고, 구장 휘하에 매 구마다 4명씩 두어 구내의 도적·수재·화재·음주의 폐단을 순찰하여 조사하게 할 것, 다섯째 商會所와 국립은행을 서울에 설립할 것, 여섯째 인천항은 부산이나 원산항과 달라 삼남지방에서 들어오는 漕運의 요충지이고 서울의 인후부에 해당되니 해군기지를 창설하여 그 지역을 튼튼하게 할 것과 마지막으로 불필요한 관직과 雜貢의 혁파를 주장하였다.<sup>15)</sup>

13) 《承政院日記》, 고종 19년 8월 23일.

14) 《日省錄》, 고종 19년 9월 5일.

朴淇鍾, 《竹圃集》 권 2, 疏 壬午封疏.

15) 《承政院日記》, 고종 19년 9월 22일.

동도서기론자들의 일차적 목표는 과학기술서적을 통하거나 서양의 기술교사를 초청하여 그들의 과학기술을 배워야겠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곧 서양의 선진 과학기술을 배워 부국강병을 이룩하겠다는 말이었다. 그러나 고영문의 상소에서 보듯 이제 동도서기론은 종래의 과학기술이나 농업·의학의 수용에 그치지 않고 행정·경제제도 등의 개혁이 미약하게나마 제시되고 있었다.

이처럼 지식영·박기중·고영문 등은 한결같이 서양의 과학기술과 농업·상업·광업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우리보다 외국이 우수한 측면이 있다면 수용해야 된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1882년 10월 14일 민간인도 火輪船·風帆船을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국왕의 분부가 나오게 되었다. 이것은 이제 서양의 과학기술 수용이 민간에까지 확산되어 가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런데 재야유생층의 상소에서는 그들이 동도에 대해서보다는 서기에 더 관심을 두었다. 이것은 바로 1880년대 초 조선의 현실이 무엇보다도 동도를 지키는 문제보다도 서기를 하루빨리 수용하여 부국강병을 이룩하려는 측면이 더 강하였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들이 결코 동도를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신기선·김윤식 등의 주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 동도서기론의 논리를 1882년 12월 22일에 尹善學이 올린 소에서 살펴볼 수 있다.

아! 西法이 나오게 되자 그 기계의 정밀함과 부국의 방법에 있어서는 비록 周를 일으킨 呂尙이나 蜀을 다스린 諸葛亮이라 할지라도 그 사이에 간여하여 논의할 수 없게 되었다. 君臣·父子·夫婦·長幼·朋友의 윤리는 하늘로부터 얻어서 본성에 부여된 것인데, 천지에 통하고 만고에 변치도록 변하지 않는 이치로 위에서 道가 된 것이다. 수레·배·군사·농업·기계는 백성에게 편하고 나라에 이로운 것으로 밖에 드러나 器가 되는 것이니, 제가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은 기이지 도가 아닙니다(《承政院日記》, 고종 19년 12월 22일).

윤선학은 도를 군신·부자·부부·장유·붕우의 윤리라고 보고, 대신 기는 수레·배·군사·농업·기계 등 백성과 국가에 편리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여기서 그는 동양의 도를 유지시켜 나가는 것을 여전히 강조하는 한편, 서양

의 과학기술의 측면을 조속히 배워 부국강병한 나라를 만들기를 바랐다.

이러한 동도서기론에 입각한 소는 趙汝·卞鎔·趙聲教·鄭映朝·柳完秀·卞應洙·金源濟 등에 의해서도 올려졌다. 이들은 주로 무기에 관심을 표명하고 외국의 선진기술을 받아들여 부국강병을 이룩하기를 주장하였다. 이러한 상소에 대해 당시 정부로서도 시무로 인정하여 정책에 반영시키겠다는 의지를 국왕의 批答을 통하여 밝히었다.

그런데 동도서기론을 주장한 인물들은 그 계층이 현직관료를 비롯하여 전직관료·재야유생·무과급제자 등 매우 다양하였다. 김윤식·신기선·박기락·박기중·변옥·변응수·김원제 등은 모두 문과에 급제하여 그 후 관료를 역임했거나 관료로서 동도서기론을 전개하였다. 특히 이들 가운데 김윤식·신기선·박기중 등은 소년시절에 성리학에 깊이 전념하였다가 그 뒤 官界에 진출하여 서기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동도서기론으로 사상적 전환을 하였다.

이러한 동도서기론은 1884년(고종 21) 갑신정변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서양의 과학기술을 받아들여 부국강병을 이룩하려는 목표에 있어서는 김옥균·박영효 등의 급진개화파의 사상과도 공조체제를 유지하였다. 다시 말해 1880년대 초부터 갑신정변 직전까지 동도서기론자와 급진개화파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개화정책의 추진에 함께 참여하였다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런 반면 동도서기론자들이 동도에 강한 집착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서양의 과학기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를 주장하자, 오히려 재야의 위정척사론자와 심한 대립과 갈등을 겪었다.

그러나 동도서기론자라 하여 그 사상과 행동노선이 반드시 일치한 것만은 아니었다. 신기선과 김윤식의 정치적·사상적 차이는 이미 1880년대부터인데, 김윤식이 친청파인데 비하여 신기선은 적어도 갑신정변 직전까지는 김옥균 등 급진개화파를 지지하는 입장에 있었다. 신기선은 갑신정변 직후 급진개화파와 결별을 선언하고 보수노선을 확실히 정하였던 반면, 김윤식은 갑신정변 뒤에도 급진개화파가 못다 이룬 정책을 일부나마 이루어 나가면서 아울러 서양과의 외교관계나 서양의 종교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보였다. 그렇지만 김윤식이나 신기선의 경우 變法의 성향을 띤 개화사상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찾기는 어려우며 끝까지 동도의 우월성을 지지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동도서기론은 유교가 지배하는 당시 조선사회에 서양의 사상과 과학기술이 들어오자, 과도기적으로 서양 과학기술을 수용하기 위하여 제기되었던 하나의 사조였다. 따라서 동도서기론이란 개화파 내부에서 동도를 강조하는 보수적 성향을 지니고 있는 부류와 위정척사파 내부에서 이탈하여 서양 과학기술을 인정하는 진보적 성향을 띤 인사들의 자기보존 논리를 가리키는 다소 모호한 성격을 지닌 것이다. 그러므로 이 논리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나 온건개화파나 급진개화파 모두의 내면에 내재된 논리이기도 하였다.

## 2) 온건개화파의 개화사상

개항 이후 조선사회는 새로운 문물의 접촉으로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1880년대 초에는 조선사회에 ‘開化’와 ‘自強’이라는 말이 풍미하고, 이에 대응하는 위정척사운동이 그 어느 시기보다 강하게 일어나 개화와 척사의 갈등은 격렬했으나, 1882년 임오군란을 고비로 척사는 고개를 숙이고 대신 정부정책은 개화로 급격히 전환하고 있었다

이 ‘개화’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兪吉濬이 “인간과 관련된 모든 사물이 지극히 선하고 아름다운 경지에 다다름을 이르고, 모든 사물을 궁구하고 경영하여 날로 새롭기를 기약하는 것”이라 하여 개화를 문화가 날로 새로워짐을 의미한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유길준의 개화에 대한 개념정의는 곧 개명화 혹은 문명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sup>16)</sup>

1880년대 개화파는 크게 온건개화파와 급진개화파로 나누어진다. 그런데 임오군란 이전까지는 온건개화파와 급진개화파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설명하기는 어렵다. 아마 온건개화파든 급진개화파든 당시 사회분위기에 서 동도를 쉽게 포기하기는 어려운 입장이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오히려 서기보다 서양의 정치, 사상이나 종교를 포괄하는 서도를 언제 어느 정도 인정하

16) ‘개화’의 개념에 대해서는 李光麟, 〈開化思想 研究〉(앞의 책, 1985) 참조.

느냐의 여부가 온건개화파와 급진개화파의 구분에 주요한 준거가 될 것이다.

우선 온건개화파와 급진개화파의 분기의 짝은 1876년 겨울 박규수가 죽은 뒤로 시국인식과 개혁방법론을 놓고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김옥균 등 급진개화파는 박규수가 죽은 뒤에도 갑신정변 직전까지 유흥기의 지도를 계속 받았던 반면, 김윤식 등 온건개화파는 당시 실권을 쥔 정치세력과 결탁해 있었다. 또한 온건개화파는 국내 정치세력뿐만 아니라 청국과도 연결되어 있어 1884년 갑신정변이 수습된 뒤에도 그들은 당분간 정치적으로 살아 남아 정치·경제·교육·기술 등의 측면에서 개화정책을 추진하였다.

온건개화파는 청국과의 전통적 국제관계를 중시하면서 청국의 양무운동을 점진적 개혁의 모델로 삼았다. 김윤식·어윤중·김홍집 등은 당시의 집권세력의 구성원이었고 이들은 조선사회의 점진적 개혁을 바랐다. 따라서, 급진개화파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수적 성향이어서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여 교육과 사상은 우리 것을 고수하기를 바랐다.

갑신정변 1년 전에 간행된 《漢城旬報》의 기사는 당시 개화파의 사상을 대변하는 것이었다. 1850년대부터 1880년대 초까지만 해도 《해국도지》와 《영환지략》을 읽고 일부 지식인만이 세계 각국에 대한 신지식을 갖게 되었던 것을 이제 이 신문을 통하여 일반 백성들도 신지식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한성순보》의 간행취지는 일반 백성의 계몽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개화사상의 확산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한성순보》 서문에는 개화파의 개화에 대한 기본 인식이 잘 나타나 있다. 즉 나라 안팎의 정세 변화와 세계 각국의 문물제도를 알리고 백성의 견문을 넓힌다는 것이 그 주된 내용이었다.<sup>17)</sup>

한편 《한성순보》를 통해 백성을 계몽할 때에 가장 많이 거론한 구체적인 사물은 부국강병의 도구가 되는 선박과 전선 등이었다.<sup>18)</sup> 그리고 부강의 기

17) 《한성순보》의 주요내용은 각 대륙의 정치·지리에 관한 지식 보급을 위한 논문으로 論洲洋, 地球圖解, 地球論(창간호), 歐羅巴洲(제2호), 亞米利加洲(제3호), 亞非利駕洲(제4호), 阿西亞尼亞洲(제5호) 등이 있고 선진 각국의 제반 사정 및 제도에 관한 것(英國誌略, 法國誌略, 美國誌略, 德國誌略), 자연과학 분야의 새로운 지식에 관한 것(恒星動論, 電報說, 歲星圖說, 測天遠鏡), 그 밖에 각국의 군비(俄國海軍)나, 국제분쟁에 관한 것(深春信息), 청·러국경분쟁의 내용에 관한 것(安南事起源)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8) 《漢城旬報》창간호, 〈旬報序〉(1883).

초로 상업을 강조하고 통신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인식하여 상업과 통신의 역할을 중시하였다.<sup>19)</sup> 갑신정변 전까지 《한성순보》의 내용을 검토해보면 적어도 사상적 측면에서는 온건·급진개화파가 합심하여 국민을 계몽하는 데 앞장섰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급진개화파의 갑신정변 실패를 계기로 온건개화파의 개화에 대한 인식도 급속도로 달라졌다. 김윤식은 개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내가 일찍이 개화에 대하여 매우 괴이하게 여겼다……歐洲의 風을 듣고 그俗을 변화하는 것을 개화라 말하는데 東土는 문명의 땅인데 다시 어찌 개명시켜 변화할 것이 있겠는가. 갑신 諸賊들이 구주를 매우 높이고 堯·舜을 박대하고 孔·孟을 폄하하여 彝倫의 도로써 野蠻이라 이르고 그 도로써 바꾸고자 하여 걸핏하면 개화라 하니 이는 天理가 끊어지고 갓과 신이 거꾸로 된 것이다 (金允植, 《續陰晴史》 상, 國史編纂委員會, 1960, 156쪽).

갑신정변의 실패로 조야의 분위기는 썰렁하여 급진개화파는 성토의 대상이었고 당분간 ‘개화’라는 말을 입에 담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온건개화파는 국민계몽이나 교육사업, 의료사업, 통신사업 등에 있어서 개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들은 국민에게 개화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널리 계몽·홍보하기 위해 1886년 1월 《漢城周報》를 창간하였고, 나아가 학교교육을 통해 서양의 근대적 학문과 기술을 체계적으로 수용·학습할 것을 주장하였다.<sup>20)</sup>

1886년과 1887년에는 어윤중과 김윤식 등이 정계에서 비록 실각하였으나 개화사상과 개화운동의 발전은 지속되고 있었다. 유길준은 갑신정변 실패 이후부터 김옥균·박영효 등 급진개화파와 관계를 끊었으나 전날의 급진개화파의 관계 때문에 1885년 말부터 1892년까지 연금생활을 하였다. 그는 갑신정변 전까지만 해도 급진개화파와 가까이 지내면서 급진적인 개화사상의 성향을 띠었으나 정변실패 후에는 점진적 개량에 의한 개화를 희망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이 연금생활 시기에 閔泳翊과 韓圭高의 후원을 받고 김홍집·

19) 《漢城旬報》 9호, 〈電報說〉.

20) 한철호, 〈시무개화파의 개혁구상과 정치활동〉(《한국근대 개화사상과 개화운동》, 신서원, 1998).

朴定陽·어윤중·金鶴羽 등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西遊見聞》을 집필하였다. 이 책은 온건개화와 인사들의 개혁사상을 대변하는 글이었다.<sup>21)</sup> 그리고 유길준의 1892년 연금해제와 더불어 새로운 관료군들이 형성되고 있었는데, 바로 유길준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였던 김학우·權滢鎭·趙義淵·金嘉鎭 등이 그들이었다. 이들은 갑오경장 때 김홍집·김윤식·어윤중 등과 함께 유대관계를 맺고 개혁의 실무를 담당하게 되었다.<sup>22)</sup>

당시 온건개화파의 개화사상은 유길준의 《서유견문》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 이 《서유견문》에 나타난 개화사상의 주된 내용은 유길준이 소년기에 접한 유학과 실학의 토대 위에서 일본과 미국유학에서 학습한 후쿠자와(福澤諭吉)의 《西洋事情》에 보이는 문명개화론과 서구의 계몽사상의 천부인권설과 사회계약설이 들어 있다. 이러한 유길준의 개화사상은 중국의 양무론자들이 내걸었던 중체서용론 내지 동도서기론과 그 궤를 같이하는 것이었다.<sup>23)</sup>

유길준은 인간의 역사가 미개화·반개화·개화의 단계를 거쳐 발전한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그가 설정한 개화한 사회란 인간이 도덕적·정치적·학문적·물질적인 여러 측면에 있어서 최고로 완성된 사회인 것이다. 그는 인간의 완전한 평등을 강조하고, 그 당연한 귀결로서 여러 가지 신분적 특권을 부정하였다. 유길준은 원칙적으로 생명을 보호하는 자유, 재산의 자유, 영업의 자유, 집회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명예를 수호하는 자유 등이 보장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였다.<sup>24)</sup> 그러나 이러한 모든 자유는 국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 안에서 행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에 의하면 국가의 법은 인간의 천부권리에 우위하는 것이고, 따라서 법과 교육이 사회발전에 있어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유길준은 자주권과 국가평등을 주장함으로써 조선이 청국과의 종속관계에서 벗어나 청국에 대한 평등한 관계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그는 군주의 절대

21) 柳永益, <『西遊見聞』論>(《韓國史市民講座》7, 一潮閣, 1990).

22) 柳永益, <甲午開化派 官僚의 執權經緯·背景 및 改革構想>(《甲午更張研究》, 一潮閣, 1990).

23) 柳永益, 앞의 글(1990a), 156쪽.

24) 兪吉濬, 《西遊見聞》4편, 人民의 權利(《兪吉濬全書》1, 一潮閣, 1971, 116~118쪽).

적 권력을 확립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민들 사이에 평등권을 확립함으로써 국민적 통합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국민적 통합의 구상은 政體論으로 결정되어 나타났다.

유길준은 먼저 역사적으로 존재한 정체의 유형을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하여 ① 君主의 擅斷하는 政體, ② 君主의 명령하는 정체(혹은 압제정체), ③ 貴族의 주장하는 정체, ④ 君民의 共治하는 정체(혹은 입헌정체), ⑤ 國人の 共和하는 정체(혹은 合衆政體)<sup>25)</sup>로 나누었다. 이러한 정체 가운데 그가 가장 훌륭한 것으로 여긴 것은 군민이 공치하는 정체였다.<sup>26)</sup> 즉 유길준이 목표로 한 정치체제는 입헌군주제를 모델로 한 군민공치정체였고, 그 정체를 기반으로 법에 의한 지배를 이념으로 하고 있었다.

이처럼 유길준은 국가의 의사가 다수의 국민에 의해 결정되는 공화제보다는 군주와 국민이 함께 정치에 참여하는 군민공치의 정체를 이상적인 형태라고 보았다. 그러나 그가 입헌군주제를 이상적인 모델로 강조하였지만 그것은 인민주권론 때문이 아니라 전통적인 정치관습과 군주권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나갈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사실 그의 입헌군주제에 대한 견해는 철저한 신분제도의 타파나 민권의 확립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sup>27)</sup>

유길준은 군주권을 인위적 현상에 의해 변개될 수 없는 별개의 천부권으로 설명하고 있다. 특히 부자가 서로 전하는 세습군주제는 만세토록 변개할 수 없는 법으로 인식하였다. 다만 군주권 속에 인위적 변개가 가능한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군주의 지나친 독단을 방지하려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그에게 있어서 군주권은 결코 민권의 신장을 위해 약화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었다. 군주권은 자연스럽게 민권을 종속시킬 수 있는 논리적 정당성을 갖게 되며, 민권은 늘 군주권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정되었다.

한편 유길준의 경제론에 있어서는 지주제에 입각한 地代徵收權에 대해서 재산권보호라는 차원에서 인정하고 있었다. 그는 1891년에 저술한 〈地制議〉에서 토지분배론이 토지를 빼앗긴 자의 원성을 초래하는 반면, 토지를 얻고

25) 俞吉濬, 《西遊見聞》 5편, 政府의 種類(위의 책, 143~145쪽).

26) 俞吉濬, 《西遊見聞》 5편, 政府의 種類(위의 책, 151쪽).

28) 尹炳喜, 《俞吉濬研究》(國學資料院, 1998).

자 하는 자에게는 요행심을 조장하여 백성을 병들게 하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하였다. 그는 토지분배론에 반대하면서 그 대신 농민경제를 안정시킬 방안을 주로 세계개혁론에서 찾았다. 이것은 사실 농민부담을 경감시키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기보다는 국가재정의 안정적 확보에 있었다. 그는 당시 조세행정의 문제는 조세액의 과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수탈에 있다고 보아 세액이 비록 과중하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그 세액을 국가의 보존과 올바른 정책의 추진에 사용하기만 한다면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sup>28)</sup>

온건개화파는 갑오경장을 거치고 독립협회의 활동 이후에 줄곧 儒學(舊學)과 新學의 절충을 주장하였다. 1898년(광무 2) 11월 5일자 《매일신문》 논설을 보면 천문학 등 서양의 학문과 과학은 나라를 부강시킬 수 있는 실학인데 우리 나라는 그것을 배우려 하고 있지 않는다고 비판하였다. 그리고 《皇城新聞》의 주필인 張志淵·朴殷植·柳瑾 등도 대체로 신학과 구학을 절충하기를 주장하였다. 구학이나 신학 하나만으로는 성인의 도도 될 수 없고 학문의 진리도 될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 신학편에 서서 절충을 시도하였던 것이다. 이들의 경향은 1890년대 새로운 온건개화파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sup>29)</sup>

한편 1908년(융희 2) 3월 김윤식은 《大東學會月報》 창간호 서문에서 인의도덕으로써 體를 삼고 이용후생으로 用을 삼아야 하며 이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도 폐지할 수 없다고 하였다. 김윤식은 인의도덕을 세계 각국이 함께 우러러 받든다고 하면서 이제 인의도덕의 보편성에 입각하여 서양인도 인의도덕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고 서학을 받아들일 자세는 어느 정도 되어 있었다.

### 3) 급진개화파의 개화사상

19세기 지식인이라면 위정척사파는 물론 개화파들도 대부분 소년기에 전통적인 방식으로 서당이나 서원·향교 등의 교육기관에서 유학교육을 받았

28) 俞吉潸, 《西遊見聞》 7편, 收稅는 法規(위의 책, 181~196쪽) 및 人民의 納稅는 分義(위의 책, 196~204쪽).

29) 李光麟, 〈開化期 知識人의 實學觀〉(《東方學志》 54·55·56, 延世大 國學研究院, 1987).

다. 따라서 급진개화파도 기본적으로 유학에 소양이 있었으니, 김옥균의 경우에도 그가 일소해 버리려고 한 것은 부패한 기득권층이었지, 유학 그 자체는 아니었다.

급진개화파란 1880년대 주로 서양과 일본의 앞선 문화를 수용하려고 했던 일군의 정치가들이다. 바로 김옥균·朴泳孝·洪英植·徐光範 등이 그 핵심세력이다. 홍영식은 영의정 洪淳穆의 아들로 명문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는 1883년 7월 報聘使의 민영익과 함께 미국에 사절로 파견되어 미국의 정치·교육·국방·농업·상공업·전신·우편제도 등 제반 선진문물을 견문하고 귀국, 복명문답기를 남겼다. 사실 1880년 《조선책략》의 도입을 계기로 조선정부의 대미인식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었다. 그리하여 1882년 미국과 최초로 수교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홍영식·서광범·유길준·邊燾 등은 미국 각지를 직접 둘러보고 와서 미국이 세계 최대의 부강국인 동시에 선진 문명국가임을 확인했던 것이다.<sup>30)</sup> 그런가 하면 김옥균·박영효 등은 일본을 시찰하고 돌아와 일본을 ‘동양의 영국’이라고 하면서 너무 부러워하고 홍영식과 짝이 되어 중국을 배척하고 서양을 존중하는 ‘排華尊洋’론을 주장하면서 말할 때마다 自主를 일컬었다.<sup>31)</sup>

급진개화파는 청국과의 종속적인 사대관계를 청산하고 완전한 자주독립을 지향하고 일본의 메이지유신을 그 개혁의 모델로 삼았다. 그리고 집권층인 수구정치세력과 대결하여 정권을 장악함으로써 급진적인 변법을 추구하였다. 여기서 변법이란 유교정치의 기본 틀인 군주제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서양의 정치제도까지도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급진개화파는 1884년 갑신정변 때 제시된 〈甲申政綱〉에서 중국과의 전통적 사대관계를 끊고 조선이 자주독립국가임을 공포하였다. 급진개화파는 임오군란 때 청국이 흥선대원군을 保定府로 강제 납치해 간 것에 대해 자주독립국가로서 너무나 부끄럽고 욕된 사건으로 생각하였다. 그래서 청국의 조선에 대한 속방화정책과 적극적 간섭정책의 굴레로부터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하여 그 동안 전통적으로 이행하여 오던 朝貢을 폐지할 것을 선포

31) 金源模, 《韓美修交史》(철학과 현실사, 1999).

31) 金允植, 《續陰晴史》하, 追補陰晴史(國史編纂委員會 편, 1960).

하였다.<sup>32)</sup>

금진개화파는 정치·사회개혁의 하나로 양반신분제도의 즉각 폐지를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문벌이나 신분제도가 그 동안 사회적 불평등의 근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의 부패나 국가의 멸망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는 견해에 근거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옥균은 갑신정변 뒤인 1885년에도 조선의 부국강병책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양반을 폐지하여 그 폐원을 없애 버리지 않는다면 국가의 폐망을 기다릴 뿐이다”라고 하였다.<sup>33)</sup>

금진개화파는 전제군주제하에서 국왕을 모시고 대신회의를 하던 것을 없애고, 국왕을 배제하고 議政所에서 대신과 참찬끼리만 매일 일과로서 회의를 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이 회의에서 논의하여 먼저 결정한 다음에 국왕에게 아뢰어 정령을 실시하고, 六曹 이외에는 국왕에게 의견을 아뢰어 전교를 받아 내는 모든 권력기관을 폐지하도록 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육조의 대신·참찬회의에서만 모든 안건을 회의·결정하도록 권력을 고위 관료에게 집중시키고 대신 국왕의 실질적 권한은 제한하였다.

금진개화파의 핵심인물인 김옥균은 조선의 자주부강한 근대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大更張改革’을 주장하였다. 그는 ‘대경장개혁’을 통하여 정부를 개혁한 뒤에 군권을 높일 수 있고 민생을 보호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청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해서도 정치·외교를 반드시 自修自強한 뒤에 이룰 수 있다고 보아, 당시 정부의 인물로서는 결코 자수자강을 할 수 없다고 여겨, 군권을 기울여 위태롭게 하는 무능한 무리를 다 쓸어버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34)</sup>

김옥균은 하루빨리 자기 나라를 개화하기를 바라고, 그 개화를 위해서는 청년층에게 신지식과 과학기술교육을 실시하여 민지를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청년층을 교육하는 방법으로서 우선

32) 金玉均, 〈甲申日錄〉(《金玉均全集》, 亞細亞文化社, 1979, 95~96쪽).

33) 金玉均, 〈池運永事件糾彈上疏文〉(위의 책).

34) 金玉均, 〈朝鮮改革意見書〉(위의 책, 111쪽). 여기서 김옥균이 군권을 높이려 했던 것은 우선 정변이 성공한 뒤 장차 양반신분제도를 폐지하는 등 ‘위로부터의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군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유학생과견을 주장하여 해외에 청년유학생을 많이 파견하여 선진지식을 학습해 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35)</sup>

급진개화파의 한 사람인 박영효는 개화를 통하여 조선의 부국강병과 대외적 독립의 달성을 주장하고, 국가의 부강과 독립을 위해서는 정부가 ‘保民’과 ‘護國’에 힘써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당시 국제관계에 대해 “강자는 약자를 합하고 대국은 소국을 삼키고 있으며, 비록 만국공법이 있고 均勢公議가 있다고 하지만 나라에 자립자존의 힘이 없으면 반드시 영토가 깎이고 분열되어 유지하지 못하니 공법공의가 원래 믿을 바가 못 되는 것입니다”<sup>36)</sup>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약육강식이 팽배한 당시 국제사회의 현실 속에서 ‘만국공법’이나 ‘균세공의’라는 것은 전혀 믿을 수 없는 것이라 하면서 조선의 대외적 위기를 천명하였다.

박영효는 나라의 부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군권을 감소하지 않고서 어찌 백성들로 하여금 當分の 자유를 누리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군권을 축소하고 민권을 신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였다.<sup>37)</sup> 그는 모든 백성은 자유의 權이 있는데 군권이 定함이 있으면 민국은 길이 안정되나, 백성이 자유의 권이 없고 군권이 제한이 없으면 비록 잠시 강성한 날이 있더라도 오래지 않아 쇠망할 것이라 하였다.<sup>38)</sup>

박영효는 정부에 대해서도 우선 정부의 직분은 국민을 온당하게 다스리되 속박함이 없고, 국법을 굳게 지키되 뜻을 마음대로 함이 없고, 외국과 교제를 하되 신의를 중하게 여기는 것이라 하였다. 즉 박영효가 이해한 정부의 기능이란 어디까지나 백성의 자연권의 실현을 보장하며 안으로는 치안을 유지하고 밖으로는 세계 열강으로부터의 침략을 방지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한편 급진개화파는 호조에 의한 제정의 통일적 관할과 예산제도의 수립을 주장하였다. 갑신정변 당시의 개화파의 재정개혁의 기본 방향은 국가의 재정관리를 모두 호조로 통일하고, 호조 이외의 모든 재무관청을 혁파하여 예산

35) 愼鍾度, 〈金玉均의 開化思想〉(《韓國近代社會思想史研究》, 一志社, 1987), 22 1~223쪽.

36) 《日本外交文書》21권, 朝鮮國關係雜件, 朝鮮國內定ニ關スル朴泳孝建白書, 196쪽.

37) 위와 같음(306쪽).

38) 위와 같음(309쪽).

제도를 실시하고 세입과 세출을 단일화하기를 바랐다. 그리고 地租法과 조세 제도를 근대적으로 개혁하여 세율을 내려서 법정화하고, 이서배의 농간과 탐관오리의 중간 착취와 부정을 제거하고자 하였다.<sup>39)</sup>

급진개화파는 갑신정변 이전에 상공업의 진흥을 역설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1883년 8월에 설립된 이래로 줄곧 어용 보부상을 보호하며 통제하고 있던 惠商公局을 폐지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 배경에는 해상공국이 개화파의 개화활동을 저지하려는 민씨를 비롯한 수구파 정치세력의 정치자금과 물리력을 동원하는 운상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동안 권력의 비호를 받은 보부상은 이 해상공국의 권력을 남용하여 백성들에게 많은 폐해를 끼치고 있었던 것이다.

급진개화파는 회사제도를 도입하여 근대적 산업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성순보》 제3호에 수록된 〈회사설〉은 주식회사와 합자회사를 설립하여 민족자본을 형성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회사가 제도적으로 서양 각국의 부국강병의 기초라고 생각하고, 하루빨리 회사제도를 도입하여 민간자본을 회사에 동원하여 업종별로 이를 전문화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김옥균은 공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부국의 기초가 된다고 강조하고 철공업·기계공업·조선공업 등의 건설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공업을 발전시켜야 부국강병을 기할 수 있으며, 나아가 세계 열강과 경쟁할 수 있고 아울러 자력으로 자기 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 자기 나라에 매장된 풍부한 광산자원을 개발하지 않고 다른 나라에 개발을 의뢰하는 것을 개탄하면서 석탄광산의 개발에 큰 비중을 두었다. 김옥균뿐만 아니라 박영효도 상업과 공업을 일으키고 그 원리와 기술을 배워 익힐 것을 주장하였다.

한편 김옥균은 각 나라의 정치 세목 중에서 우선 절실한 것으로 위생·농상·도로 세 가지를 들었다. 그는 ‘대경장개혁’의 한 부분으로 특히 ‘治道’ 즉 도로의 개선과 정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그는 1880년대 초를 대경

39) 개화파의 경제개혁은 조선 후기 이래 지주적 입장의 개혁노선을 계승하고 있다고 한다. 즉 개화파는 모든 당시의 모순을 부세제도의 문란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이서배들의 농간을 배제하고 탐관오리의 숙청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饒戶富民論을 보호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는 것이다(朱鎭五, 《19세기 後半開化 改革論의 構造와 展開》, 延世大 博士學位論文, 1995).

장의 기회로 보고 일본의 변법을 이야기하면서 오직 치도의 공에 효과를 크게 거두었다고 설명하면서, 아울러 위생과 농상의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였다. 그는 〈治道略論〉에서 중앙정부에 治道局을 설치하여 대신이 이를 관장할 것을 주장하고, 서울과 지방에도 치도를 위한 행정조직을 완비하되 서울에서는 한성판윤이 이를 관장하고 지방의 각 부에서는 면적과 인구의 크기에 따라 등급을 정해서 치도를 위한 행정기구를 설치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김옥균은 당시 조선이 개혁해야 할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위생을 강조하였다. 그는 전염병이 기승을 부리어 번지는 원인으로 거처의 불결과 음식의 무절제와 의약의 미발달 등을 들었다. 그리고 위생의 요체로 청결과 의약의 발달을 들고, 국민의 보건과 위생을 위하여 국민이 생활하는 거처를 청결하게 할 것을 강조하였다.

박영효는 도로와 위생을 興農과 관련지어 설명하였다. 그는 당시 먼저 서둘러야 할 일이 흉농만한 것이 없다고 보고 흉농을 하려면 糞田을 해야 하고 분전을 하면 거리가 깨끗해지고 전염병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 농법은 수송이 중요하고 수송을 하려면 치도를 해야 하고 도로에서 거마를 이용하면 10명의 노력을 1명이 할 수 있으니 9명은 기술자로 직업 전환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한편 김옥균·박영효 등 급진개화파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사상을 지녔다. 급진개화파는 국민의 ‘교화’를 위하여 교육과 의료사업을 위해서는 선교사를 초빙하고 서양 종교의 포교를 승인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사실 1884년 6월 24일에는 감리교회 선교사 맥클레이(R. S. Maclay)가 조선에 들어와 7월 3일 고종으로부터 교육과 의료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선교 허락을 받았다. 이제 정부를 포함하여 급진개화파든 온건개화파든 감신정변 직전에는 모두 교육사업과 의료사업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선교사의 조선입국과 기독교를 인정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가고 있었던 것 같다.

특히 김옥균 자신은 종교에 대해서도 자유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어 국민의 ‘교화’를 위해서는 서양 종교의 유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맥클레이의 고종 배알을 주선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그는 스승 유흥기의 영향을 받아 불

교에 호의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김옥균이 불교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급진개화사상가 되었다거나<sup>40)</sup> 김옥균이 급진개화사상을 가졌기 때문에 불교에 대하여 매우 적극적이고 긍정적 태도를 갖게 되었다<sup>41)</sup>는 것은 그의 종교에 대한 자유로운 태도를 보여준다. 또한 박영효는 미국뿐 아니라 문명한 나라들이 부강한 이유를 기독교의 교화에서 찾았다. 그는 인간은 종교 없이는 자립할 수 없고 정치를 하는 자는 종교를 제외하고서 많은 인민을 교육할 수 없다고 하면서 동양제국이 기독교를 신봉하지 않으면 구미 각국과 같이 병존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요컨대 급진개화파는 대내적으로는 양반신분제의 폐지와 문벌에 관계없이 유능한 인재를 등용할 것을 주장하였고, 대외적으로는 청국으로부터 독립을 주장하고 서양열강과 친밀한 외교관계를 유지할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신문을 발간하여 백성을 계몽하고, 나아가 교육과 의료사업을 위해서 외국의 선교사를 불러들여 종교의 포교를 승인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상공업에 의한 국가재정의 확충과 광산의 개발을 도모하고 근대적 병력의 양성 등을 통하여 부국강병을 기하기를 주장하였다.

이러한 급진개화파의 개화사상은 갑신정변의 실패로 위축되었다가 갑오경장을 거쳐 독립협회에 의하여 계승되어 한 단계 더 발전하여 전개되었다. 개화사상의 발전과정에서 1890년대에는 일반 백성들도 소수이기는 하지만 개화사상의 영향을 받아 개화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드디어 갑신정변과 갑오경장 때 제시되었던 개화사상과 개화정책이 민중 속에 영향을 미치면서 발전해 나가기 시작했다. 이 당시 《독립신문》을 간행하고 독립협회를 조직하여 활동하였던 徐載弼은 18세기 유럽에서 발달한 계몽사상의 천부인권설에 의거하여 사람은 누구나 이성을 지니고 있고, 태어날 때부터 자유와 평등의 생존권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sup>42)</sup> 서재필은 독립협회에 토론회를 도입하여 자기 나라의 정치·경제·사회 등 제반문제를 토론에 부쳤다. 그리하여 구체적인 열강에게 이권을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는 반대운동을 벌였고, 국민의 인

40) 李光麟, 〈開化黨의 形成〉(《開化黨研究》, 一潮閣, 1973), 12쪽 참조.

41) 愼鏞廈, 〈金玉均의 開化思想〉(《東方學志》 46·47·48, 1985).

42) 《독립신문》 2권 28호, 1897년(건양 2) 3월 9일.

권과 재산권보호, 참형과 연좌법의 폐지, 그리고 국민의 언론을 넓히기 위해 의회를 설치해야 된다는 등의 개화운동을 벌여 개화사상은 점차로 민중 속에 번져 갔다.

1896년(건양 1) 4월 7일에 창간된 《독립신문》에서는 민권의 신장에 목적을 둔 대중적 계몽지로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명백히 천명하였다. 이 《독립신문》에서는 민권·법치주의·주권수호 등이 특히 강조되었다. 《독립신문》이 발행된 지 3개월 뒤인 7월 2일에는 독립협회가 창립되었다. 독립협회를 중심으로 한 개화사상은 사상의 내적 논리에서 보면 1880년대의 개화사상을 계승하면서 한층 발전시킨 것이었다. 이제 독립협회의 개화사상은 자유민권사상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민족주의사상과 결합되어 나타났다.

그 특징으로서는 우선 국민자유권사상을 체계적으로 정립하여, 생명과 재산의 자유권, 언론·집회·결사의 자유권을 주장하고 발전시켰다. 또한 국민 평등권사상을 발전시켜서 사회 신분제도의 폐지론뿐 아니라 남녀평등론을 체계적으로 정립, 발전시키는 여권운동이 대두되었다. 다음으로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며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국민주권사상을 정립하였다. 그리고 국민 주권론에 기초하여 국민참정권사상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국민의 직접적인 참정을 제도화하자는 주장을 하였다.<sup>43)</sup>

독립협회는 당시 지방행정의 문란과 농민의 동요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농민들에게 ‘참정권’을 주어 일반선거제도에 의해서 지방관을 그 지방인민의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게 하자고 제안하였다. 독립협회는 국민참정권사상을 지방정치에서만 아니라 중앙정치에도 적용하여 의회설립을 주장하였다. 독립협회의 의회설립론은 종래 정부자문기관으로 설치되어 있던 중추원을 먼저 ‘上院’으로 개편하는 형식으로 입안되어, 1898년(광무 2) 11월 4일 의회설립법인 〈중추원신관제〉가 공포되었다. 이 때 공포된 의회의 권한은 입법권, 조약비준권, 의정부에서 의결하고 상주하는 일체 사항에 대한 동의권, 칙령을 받고 의정부에서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동의권, 의정부의 임시건의에諮詢하는 사항, 중추원에서 임의 건의하는 사항, 인민의 헌의사항 등의 심의결

43) 慎鍾廈, 《獨立協會研究》(一潮閣, 1976), 175~214쪽.

정권으로 되어 있었다.<sup>44)</sup>

이 독립협회를 중심으로 전개된 개화사상은 계몽사상의 성격을 띠면서 점차 민중 속에 번져 가기 시작했다. 독립협회의 개화사상도 당시에는 주로 도 시민과 청년층에게 영향을 미친 정도였다. 그러나 개화사상이 지속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집권층도 일부 개화정책을 추진하기도 하여 1904년까지 자주적 근대화가 부분적이거나 시행되었다. 그 뒤 독립협회를 중심으로 전개되던 개화사상은 일제에 의해 국권이 침탈당하는 위기 아래 전개된 애국계몽운동의 사상적 이념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다가 일제강점기에는 문학·역사 등 신문화운동의 이념으로 발전하였으며, 그 후에도 줄곧 한국의 근대화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사상이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개화사상은 1850년대 말부터 형성되기 시작하여 1876년 개항 이후에는 정치세력인 개화파가 형성되었고, 1880년대에는 개화파가 추진한 개화정책의 이념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1880년대 초에는 전현직 관료나 일부 재야유생층은 동도서기론을 기반으로 하는 온건개화사상을 지니고 있었다. 아직 서양의 정치제도나 사상, 종교를 인정하는 급진개화사상은 김옥균·홍영식 등 소수 양반출신과 일부 청년지식인들만이 갖고 있었다. 이 때문에 급진개화파는 먼저 정권을 장악하여 정부의 권력으로 개화사상에 의거한 ‘위로부터의 대개혁’을 단행하려고 갑신정변을 일으켰으나 실패하였다.

갑신정변의 실패로 개화정책은 다소 위축되었다. 그러나 온건개화파는 1886년 1월 《한성주보》의 발행 등을 통하여 국민계몽과 교육사업 등을 줄곧 추진해 나갔다. 유길준이 《서유견문》을 집필하는 등 개화사상을 학문적으로 정리하고 구체화시켜 나가기도 하였다. 1894년(고종 31)에 이르러서는 온건개화파가 다시 정치일선에 등장하여 개화정책의 추진에 참여하였다. 그 뒤 개화사상은 독립협회의 자유민권사상으로 발전하였고, 1900년대 초에 일제가 국권을 침탈하자 애국계몽사상으로 발전하여 주로 교육사업과 신문화운동을 통한 계몽운동의 사상으로 존재하였다.

---

44) 위와 같음.

요컨대 개화사상은 조선의 부국강병이라는 목표를 위하여 정치사회적으로는 전제군주제를 입헌군주제로 개혁하여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정치체제를 수립하기를 바랐다. 그리고 양반신분제도를 폐지하고 인재를 능력에 따라 발탁하여 쓰고,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실현함으로써 자유로운 시민사회를 수립하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계몽과 신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신문을 발간하고, 경학이나 사창학 중심의 교육을 근대적으로 개혁하여 신식 학교를 널리 설립하고 신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상공업과 광업을 개발하여 근대산업체제를 수립하려고 하였고, 외국의 군함을 도입하여 해안을 지키고, 구식 군대를 신식 군대로 개편하면서 근대적 무기로 무장시켜 부국강병을 이룩하여 열강의 침략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려고 하였다. 개화사상은 19세기 중후반기에 조선사회가 당면했던 민족적 위기를 타개하고 장차 자주부강한 근대국민국가를 건설하여, 나라의 자주독립과 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중추적 이념이었다. 개화사상의 본질은 완전 자주독립한 입헌군주정체의 나라를 수립하고, 자본주의경제의 추구를 그 목표로 한 것이었다.

〈權五榮〉